2일 Market Index
코스피 5859.08 (+128.34)
코스닥 734.36 (+9.98)
금리(국고채 3년) 3.740 (+0.025)
환율(원·달러) 1343.8 (+9.5)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시행 7개월, 현장엔 교섭 온도차 여전

노란봉투법 7개월

❶ 교섭 시점 제각각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이 사업장마다 다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노사 교섭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고용안정을 위한 합의가 나온 반면,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에 처음 마주 앉은 곳도 있다. 원청과 교섭할 길은 열렸지만, 교섭 개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사업장별로 진척에 차이가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을 되돌아보며 달라진 일터와 향후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민 아버지' 최불암 영면 영원한 '수사반장'이자 '국민 아버지'로 사랑받은 배우 고(故) 최불암(본명 최영한)씨가 영면에 들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이 유족과 동료 배우들, 성당 신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10일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한 법이다. 파업 등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고, 하청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하청업체와 협상해도 원청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에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 교섭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기준 하청 업장은 총 46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2곳이 교섭이나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81곳은 첫 만남을 포함한 본교섭 절차를, 61곳은 논의할 내용과 일정 등을 정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합의 사례로는 지난 9월 단체협약을 맺은 현대제철과 한강이앰피 등이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을 모두 원청의 교섭 거부 사례로 볼 수는 없다. 같은 기준일에 238곳은 노조의 교섭 요구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대형 건설사와의 우선 교섭이나 공공부문의 대정부 협의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절차를 미룬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 건수와 함께 교섭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교섭요구 받은 사업장 460곳
142곳 교섭·실무협의 시작
현대제철 등 4곳 합의사례
238곳은 후속절차 미진행

실제 합의에 도달한 대표 사례는 현대제철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9월10일 현대아이티씨(ITC·당진)·현대아이이씨(IEC·순천)·현대아이엠씨(IMC·포항)·현대아이에스씨(ISC·인천) 등 4개 자회사 노사와 근로조건에 관한 약속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노동부는 이를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로 발표했다.

교섭에서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교섭 책임을 인정한 산업안전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 8월20일 첫 만남 이후 네 차례 열린 교섭에는 현대제철뿐 아니라 자회사 측도 참여했다. 노사는 자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 개선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6면에 계속〉

/박경수 기자 gws0325@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 전환"

李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미래성장동력에 투자 확대
청년·지방 더 많은 기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청년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성장과 격차 완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예산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주식 판 돈 다음날 받는다… 결제주기 T+1 전환

50년만에 'T+2 결제' 개편
오는 2028년 중 도입 목표
반대매매는 하루 빠른 T+2

앞으로 하루면 주식을 판 돈이 계좌에 들어온다. 〈관련기사 13면〉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내놨다. 목표 시점은 2028년 중이다. 1972년 'T(주식 거래 체결일)+2'일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의 개편이다.

지금은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수요일에 돈이 들어온다. 'T+1'로 바뀌면 화요일에 들어온다. 사는 쪽은 돈을 하루 먼저 내야 한다.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미수거래 투자자는 미수금을 T+1일까지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기존처럼 T+3일이 아니라 하루 빠른 'T+2'일에 일어난다. 증권사가 종목이나 수량을 잘못 입력해 체결된 거래를 바로잡는 신청 시한도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에서 거래 당일 오후 8시 30분으로 당겨진다. 휴장일이 없는 경우 배당 일정도 달라진다. 주식을 산 다음 날 바로 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배당을 받으려면 지금은 기준일 이틀 전까지 사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일 하루 전에만 사면 된다.

시장 전체로는 결제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거래는 끝났지만 돈과 주식이 아직 오가지 않은 상태로 남는 기간이 하루로 짧아져서다. 증권사가 이런 위험에 대비해 맡기는 증거금 부담도 덜게 된다. 2024년 5월 T+1로 바꾼 미국에선 청산소(NSCC)가 회원사에서 받는 청산기금이 전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23% 줄었다.

제도 도입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둔 것은 금융업계 전반의 시스템 개편과 외국인투자자의 시차·환전 부담을 고려해서다. 결제주기를 단축하려면 매매 확인부터 정정, 청산, 환전, 승인, 결제까지 이틀에 걸쳐 수행하던 10단계 이상의 업무를 하루 안에 처리해야 한다.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전산시스템과 업무절차를 바꿔야 한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메트로 한줄뉴스



▲與, 이르면 내일 의총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보고
▲박범계, '조국혁신당이 구명정' 유시민에 "권력 투쟁적…분열 고착화될 수도"
▲박지원 "정청래, 前대표가 무슨 깃발 드나…백지장 맞들어야"
▲오세훈 "도심 마라톤 코스·일정 원점 재협의…시민 불편 줄일 것"
▲경찰, 김병기 보완수사 마무리…"공소청과 처리 방향 협의"
▲"뛰면 위험하잖아요" 학부모 한마디에…초등학교 계주 취소

/사진 뉴시스

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 오르나… 조원태 지분 '역전' 관측

호반그룹, 최근 추가장내 매수
한진칼, 관련 내용 미확정 공시
한진그룹 경영권은 별개의 문제


호반그룹 사옥 전경.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경영권을 둘러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호반그룹의 지분 경쟁이 벼랑 끝 승부로 치닫고 있다. 호반그룹이 추가 장내 매수를 통해 조 회장 측 지분을 넘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다만 한진칼은 관련 내용을 미확정 사항으로 공시하고 재공시 시점을 예고해 실제 최대주주 변경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약 20.6%를 소폭 웃도는 수준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0.42%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측의 지분 격차가 약 3개월 만에 역전됐다는 것이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진칼은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다음 달 1일까지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등극 여부는 추가 공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가 2023년 호반호텔앤리조트를 통해 팬오션 보유 지분을 사들이는 등 꾸준히 지분을 확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조 회장 측 지분은 20.57%, 호반그룹은 19.83%였다. 7월 장내 매수로 호반그룹 지분이 20.15%까지 늘어난 데 이어 이번 추가 매수로 양측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관측이다.

다만 최대주주 지위와 한진그룹 경영권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6.05%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조 회장 측은 델타항공(14.90%)을 비롯해 LX판토스·GS리테일 등 우호 주주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항공도 최근 한진칼 지분을 취득해 조 회장 측에 우호적인 주주로 거론된다. 호반그룹 역시 현재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고 있어 이사회 진입이나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우호 지분에 대해 "충분히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경영권에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향후 양측의 추가 지분 매입 움직임이다. 공정위는 지분율뿐 아니라 주주 간 관계와 임원 겸임, 기업 간 거래·자금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지배관계 변화를 판단한다. 최대주주 지위가 실제로 바뀌더라도 우호 지분과 이사회 구성 등 경영권을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맞춤형 HBM 개발 확대 움직임

미주총괄 신설… 안현사장 초대 수장
빅테크 등 차세대 시스템 로드맵 대응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이 지난달 14일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 키노트 스피치에서 'AI 시대, 메모리 혁신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을 이끌어 온 안현 사장을 미주총괄에 선임했다. 미국 빅테크와 AI 칩 설계 단계부터 협력해 고객 맞춤형 HBM 개발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0일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급 미주총괄을 신설하고 안 사장을 초대 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 사장 후임 개발총괄에는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이 선임됐으며, 미래기술연구원장도 겸임한다. 회사는 미주총괄을 통해 현지 빅테크 고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리더십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사업 규모는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지역별 매출에서도 확인된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소재 판매법인의 외부 고객 매출은 84조5648억원으로 연결 매출의 64.1%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고객 소재지가 아닌 판매법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안 사장의 미주총괄 선임과 맞물린 사업 방향은 고객 맞춤형 HBM 개발이다. 맞춤형 HBM은 고객사 AI 칩의 구조와 작업 특성에 따라 베이스 다이(base die)와 패키지 등을 조정하는 제품이다. AI 시스템마다 필요한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 전력·발열 조건이 다른 만큼 시스템 설계 초기부터 메모리 사양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회사는 지난달 공개한 기술 자료에서 고객사의 차세대 시스템 로드맵에 맞춰 메모리 사양과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협력을 설계 초기로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SK하이닉스는 HBM4부터 베이스 다이에 TSMC의 첨단 로직 공정을 적용하는 등 메모리와 로직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베이스 다이와 패키지 설계가 고객별 요구에 맞춰 고도화되면서, 메모리 업체의 역할도 완제품 공급을 넘어 고객사 시스템 설계와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고객사 자체 AI 칩 개발 확대도 맞춤형 메모리 수요와 맞물린다. 대만 IT 전문매체 디지타임스(DIGITIMES)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2027년 고성능 클라우드 AI 가속기 출하량을 2595만1000대로 전망했다. 자체 설계 주문형 반도체(ASIC)는 1526만2000대로 전년보다 110.9% 증가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출하량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엔비디아도 고객 맞춤형 메모리 설계 사례를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8월 자체 메모리 컨트롤러를 HBM 베이스 다이에 통합한 맞춤형 메모리 아키텍처 'NVHBM'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이 설계로 표준 HBM4E보다 메모리 대역폭을 최대 30% 높이고 전력 소비를 15% 줄이는 한편, AI 가속기(XPU)의 연산 다이 면적도 최대 25%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엔비디아는 아마존의 안나푸르나랩스가 NVHBM 개발에 첫 협력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표준 HBM 공급 확대도 이어진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4분기 HBM4 출하량과 매출이 HBM3E를 넘어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사장은 지난 4월 TSMC 기술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표준형 HBM을 공급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고객의 특정 니즈에 맞춘 커스텀 HBM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가동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열린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 가동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 두번째부터)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3분기 성장률, OECD 중상위권 유력

10위권 진입 가능성… 4분기 관심집중

우리나라의 성장률 호조세가 3분기 주요국 비교에서도 확인됐다. 2일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곳 중 16곳의 올해 7~9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치가 취합됐다. 한국은 중간순위 2위에 올라 있다. 올해 1분기 2위라는 성적을 낸 뒤 2분기 주춤(19위)했지만 3분기에 다시 10위권에 들 가능성이 커졌다.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은 1.0%로 아일랜드(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 외 발표를 마친 나라들은 직전분기 대비 역성장이 2곳(프랑스·리투아니아)이고 보합(0.0%) 1곳(이탈리아), 0.1~0.9%가 11곳(미국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반도체와 수출 호황기의 여세가 OECD 비교에서도 톡톡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 아래로는 멕시코 0.9%, 미국 0.8%, 네덜란드 0.6%, 스웨덴 0.4%, 캐나다 0.3%, 독일 0.2% 등이다. 1~2주 내 일본과 영국 등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비교에서도 중국(1.2%)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고성장을 지속 중인 인도·인도네시아 등이 집계에 포함되면 순위는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올해 3개 분기(1.8%·0.6%·1.0%, 모두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합산한 수치가 3.4%에 달한다. 이 역시 아일랜드(7.9%)에 이어 2위다. 비교대상 16개국 가운데 현재 3개 분기 합계가 2% 이상인 곳은 멕시코(2.0%)·미국(2.0%) 포함 4개국뿐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4분기 수치가 관심을 크게 끌게 됐다. 그 결과에 따라 올해 GDP 증가율(전년대비)이 3%대 초반, 중반, 아니면 후반이냐 등으로 갈린다.

한편, 3분기의 경우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2분기 중위권(공동 19위)에 그쳤던 영향에 그 다음 순조로운 반등이 가능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 1분기 1%대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했다. 중동발 유가 폭등의 영향이 컸다. 이어 2분기엔 총회원국의 4분 1이 넘는 10개국이 1%대 성장률을 보였다. 3분기 1%대 국가 수에 따라 우리나라 순위 등이 가려진다. OECD 회원국 중 개도국 대부분의 수치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증권사, 개인투자자 위한 징검다리용 상품 선봬

›› 1면 '주식 판 돈 다음날'서 계속

유관기관들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일정을 잡았다. 거래소·예탁결제원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증권사와 외국인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을 끝내고, 이후 최소 6개월간 시장 전체가 함께 통합 테스트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개미(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징검다리용 상품도 선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이 2일, 키움증권이 오는 20일 먼저 출시한다. 금리는 증권사별로 출시 때 공지한다. 유관기관은 투자자당 이자가 25% 정도 줄고, 취급 증권사를 12곳으로 늘리면 투자자 전체 이자가 연 150억원 정도 줄 것으로 봤다.

외환당국은 지난 7월 외환시장을 평일 24시간 체제로 바꿨고,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역외 원화결제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등은 오는 12월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제공하고, 내년 1분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가동한다. 로드맵 초안에 대한 시장참가자 의견은 12월 18일까지 수렴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증시 롤러코스터에 '피난'… 파킹형 상품으로 뭉칫돈 이동

파킹형 ETF 한 달 새 3.5조 순유입
MMF 설정액 270조 가까이 급증
주식·금값 변동성에 관망세 확산
머니마켓형 ETF 연 수익률 3%대
안정적 수익 좇아 대기자금 집중


ChatGPT로 생성된 이미지. 증시 불안에 대기자금이 파킹형 ETF로 돌아오고 있지만, 자금은 머니마켓형에만 몰리고 금리형은 외면받고 있다.

국내 증시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을 피하려는 자금이 안전 추구형 금융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개별 종목은 물론 전통적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까지 큰 폭으로 출렁이자 투자자들이 머니마켓펀드(MMF)나 만기가 짧은 채권·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리스크는 낮으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파킹형 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 3%대 파킹형 ETF로 대기자금 이동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원화 파킹형 ETF 31종에는 지난달 3조4839억원이 순유입됐다. 머니마켓·단기채형에 3조7547억원이 들어온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금리형에서는 2708억원이 빠져나갔다. 전체 유입액의 66%인 2조3127억원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 한 상품에 몰렸다. 이에 힘입어 31종의 순자산은 50조원을 넘어섰다.

파킹형 ETF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 추구형 ETF로 꼽힌다. 가령 KODEX 머니마켓액티브와 RISE 머니마켓액티브는 단기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다.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아 원금 지키기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WON 전단채플러스액티브는 3개월 이내 우량 전자단기사채(STB)와 CP를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정기예금 대비 높은 수준의 이자 수익을 추구한다. 마찬가지로 투자 위험이 은행 예금 수준에 가깝게 낮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머니마켓형의 최근 1년 수익률(분배금 재투자 기준)은 평균 3.11%로 KOFR금리형(2.67%)을 웃돌았다.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예금보다 수익률은 높으면서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셈이다. 다만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MMF가 유동성이 가장 좋은 최단기채이다 보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 것 같다"고 봤다.

◆MMF에도 270조원 가까이 자금 몰려

이 같은 흐름은 ETF뿐 아니라 MMF 시장에도 나타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 MMF 설정액은 269조5469억원으로, 9월 말(231조5771억원)보다 37조9698억원(16.4%) 늘었다. 특히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유가 상승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다. MMF는 국고채·기업어음 등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예금보다는 약간 높은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는 불확실한 시장 분위기 속 안전한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한 결과란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대표 안전 자산인 금마저 가격이 출렁이는 점도 안전 추구형 ETF와 MMF의 투자 수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30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875.44달러로 마감했다. 하루 새 3.63% 급락하며 지난 1월 2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5595.46달러)보다 30% 넘게 떨어졌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주가 반등한 틈을 타 일단 수익을 확정하고 안전한 곳에서 다음 투자 기회를 기다리려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들이 증시를 완전히 떠나기보다 관망하면서 대기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향후 증시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AI 서버 투자 열풍'… 한·일 전자부품 증설 경쟁 가열

엔비디아, 기판 생산능력 2.5배 확대
삼성전기, MLCC 8793억원 공급계약
日 이비덴, 기판 생산능력 3배 확대
무라타도 MLCC 증설에 8.5조 투입


일본 기후현에 위치한 이비덴 오노 공장 전경. /이비덴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가 반도체 연결과 전력 공급에 필요한 부품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한·일 전자부품업체들의 증설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일 삼성전기와 엔비디아 등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달 엔비디아와 세종·부산사업장의 반도체 기판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한 데 이어 30일 8793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공급계약을 공시했다. 같은 날 일본 무라타제작소도 MLCC 증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 이비덴은 하루 앞서 서버 중앙처리장치(CPU)용 기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서버 출하 증가와 반도체 고성능화가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지난달 28일 실적발표에서 AI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주문형 반도체(ASIC)에 필요한 MLCC 정전용량이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압 변동을 줄이는 MLCC의 저장 용량을 높이면서 크기는 줄여야 하는 기술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추론과 에이전트 확산도 부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달 29일 CPU 수요 증가로 메인보드와 DDR5 메모리 모듈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이비덴, 엔비디아 수요에 기판 증설

엔비디아는 삼성전기와 일본 이비덴, 대만 유니마이크론과의 협력을 통해 자사 제품용 기판 생산능력을 향후 3년간 현재의 2.5배로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지난달 21일 엔비디아와 공동 투자로 세종·부산사업장의 전용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다년간 연산용·네트워크용 기판을 공급하며, 공급물량은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고객사의 투자금 지원과 중장기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세종·베트남 기판 증설에 총 6조78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세종 증설 설비는 2028년 9월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인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는 고성능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기판이다.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면서 기판 면적과 회로층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성능 기판 공급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기의 3분기 패키지솔루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한 9390억원을 기록했다. MLCC 등을 담당하는 컴포넌트 사업 매출도 AI 데이터센터용 공급 증가로 36% 늘어난 1조8830억원을 기록했다.

일본 이비덴도 엔비디아의 선급금을 바탕으로 오노 공장의 생산능력을 현재의 세 배로 확대한다. 증설 설비는 2028년 1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서버 CPU용 기판에 약 1510억엔(약 1조28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일본 기후현 가마 사업장과 해외 생산거점의 생산능력을 늘린다. 신규 설비는 2029년 4월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순차 가동할 계획이며, 회사는 지난달 30일 AI 추론과 에이전트 확산을 반영해 고성능 서버 CPU 수요 전망도 상향했다.

이밖에도 엔디비아는 대만 유니마이크론과도 생산능력 예약 계약을 맺고 KF 공장을 증설한다. 엔비디아는 증설분이 2027년 2분기부터 가동돼 이듬해 중반 최대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MLCC도 대규모 투자… 日 무라타 8조 투입

이에 전력 공급용 부품에서도 공급계약과 증설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기의 AI 서버용 MLCC 공급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21일부터 내년 같은 날까지이며, 고객사명은 비공개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공시한 주요 부품 장기공급계약은 8건, 약 5조1800억원으로 MLCC 외에 반도체 기판 등의 계약도 포함됐다.

일본 무라타제작소는 올해 4월부터 2031년 3월까지 5년간 약 1조엔(약 8조5000억원)을 투입해 MLCC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1년 3월 결산 기준 MLCC 연간 매출을 2026년 3월 결산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무라타는 일본 오카야마현에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MLCC 생산동을 신설하고 태국에도 새 생산동을 건설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中 전기차 '24개월 개발' 공세… 韓 부품업계 속도전

HL만도, 개발 병렬화로 기간 단축
조향장치 8개월 만에 공동 개발
현대모비스, 검증 효율화 속도

중국 신흥 전기차업체들이 신차 개발 기간을 2년 안팎으로 단축하면서 국내 부품업계와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개발 체계 전환과 현지 대응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HL만도는 중국 완성차업체들의 짧아진 개발 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순차형 개발 방식을 병렬형으로 전환했다. 설계와 검토 등 개발 업무를 단계별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HL만도는 중국 현지 업체와 전동식 조향장치(R-EPS)를 8개월 만에 공동 개발했다. 영업·연구·생산·품질·구매 조직이 참여한 스마트 댐핑 제어(SDC) 프로젝트는 14개월 만에 양산에 들어갔다. 중국 소프트웨어 개발조직인 'SW 랩 차이나'도 1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HL그룹은 2일 중국 지역 대표를 지낸 박영문 사장을 HL만도 신임 최고경영자(CEO) 겸 오토섹터장으로 선임했다. HL만도는 기존 제품·기능·지역의 3개 축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지역·기능의 2개 축으로 단순화해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도 개발 검증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 4월 실제 주행 데이터를 시뮬레이터와 연동해 자율주행·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제어장치를 반복 시험하는 평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대 60대의 시뮬레이터를 병렬로 연결하면 1만 시간 분량의 검증을 일주일 만에 수행할 수 있다.

중국 현지 협력망도 확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기업과 완성차업체, 투자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처음 개최했다.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의 현지 기업을 발굴해 공동 또는 독자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중국 신흥 전기차업체들은 플랫폼을 포함한 신차 개발을 약 24개월 만에 마치는 반면 다른 자동차업체들은 40~50개월 이상이 걸린다. 자체 개발 비중 확대와 부품 공용화, 공급사와의 조기 협업, 개발 단계별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 등이 개발 기간 단축의 배경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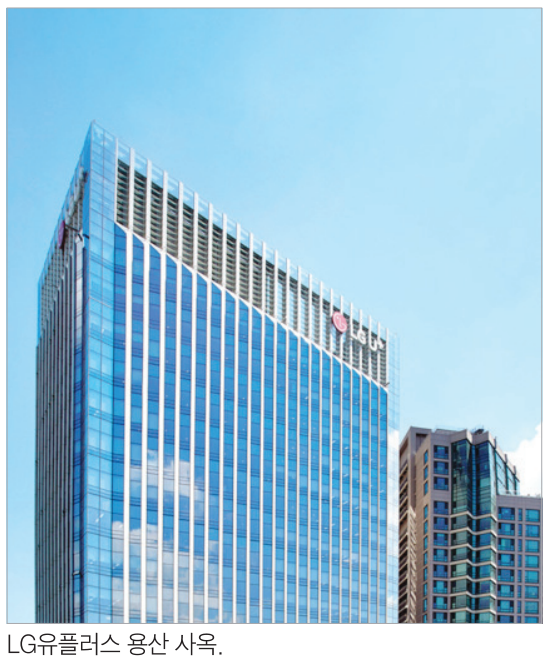
글로벌 완성차업체들도 개발 기간 단축에 나섰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개발한 전자 아키텍처의 적용 차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너럴모터스(GM)는 AI와 가상검증을 활용해 신차 개발 기간을 기존 4~5년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박 CEO는 지난달 HL 공식 인터뷰에서 "차이나 스피드에 대응하는 진짜 경쟁력은 단순한 개발 속도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판단하고 움직이는 속도와 소통의 밀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AI, 일상 전반으로… '사람 중심' 고객 경험 깊이 새긴다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홍범식 CEO의 모습.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가 지난 6월 '일상을 심플하게, 심플리 유플러스' 브랜드 캠페인을 공개했다.


지난 9월 재단장한 L유플러스의 문화복합공간 '일상비일상의틈' 모습.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휴머노이드 로봇과 연결해 일상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미래 청사진을 MWC26에서 공개했다.



LG유플러스 파주 AI 데이터센터 조감도. /LG유플러스

37 LG유플러스

인공지능(AI)이 사람들의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는 시대에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기업이 있다. '사람 중심 AI'를 선언한 LG유플러스다. 초지능이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경험에 집중하고, AI 활용의 중점을 고객들의 편의성 개선에 맞춘다.

'사람 중심 AI' 경영의 정점에는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문화예술 마케팅이 있다. AI 기술로 통신 품질을 고도화하는 데에서 나아가,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해 LG유플러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 친화적으로 정립한다는 전략이다.

◆ 간단할수록 편리해진다…고객 경험 혁신하는 '심플리' 철학

LG유플러스는 고객 서비스는 '심플리 유플러스' 철학에서 시작한다. 고객이 직접 요금제를 비교하고 가입 조건을 확인하는데 들이는 수고를 줄여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심플리 2.0'을 발표하고 고객 서비스와 직결되는 요금제와 결합 상품 구조를 직관적으로 개편했다. 5G·LTE 요금제 구분을 완전히 없애고, 요금제 종류도 기존 53종에서 18종으로 파격적으로 줄여 고객의 선택 부담을 낮췄다. 연령별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고객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VOC 소통 창구도 편의성을 추구한다. 통상, 이용자가 개선을 요구한 내용을 수집하고 상품에 반영하는데, 이 과정을 양방향 서비스로 전환했다. 고객이 제시한 의견을 두고 또 한번 투표를 거쳐 다른 고객들이 공감하는 정도까지 파악하는 것이다.

'심플리' 통해 요금제·결합상품 구조 개편
요금제 종류 53종 → 18종, 선택 부담 완화
VOC 소통 창구, 양방향 서비스로 전환

'일상비일상의틈' 참여형 플랫폼으로 진화
오프라인 매장도 고객 체험형 전환 속도

'익시오' 통화요약·보이스피싱 탐지 등 지원
보이스 AI 기능 더한 프로모델 해외 공급
파주 AIDC 중심 'AI 풀스택' 경쟁력 구축

고객의 제안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유플러스 공식 앱 '유플러스 원'에서 전부 지원해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혁신 서비스는 요금제 개편과 더불어 가족과 공유하는 로밍 패스, 자녀들의 요금제 관리 기능을 공식 앱에 추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심플리 유플러스' 프로젝트는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본상을 수상했다.

◆ 오프라인 전략 차별화…일상과 경험에 문화예술 더한다

고객과의 소통 전략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장된다. LG유플러스의 오프라인 전략은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고객이 브랜드를 체험하고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상비일상의틈'이 있다. 지난 9월 재단장을 마친 이 공간은 문화예술 전시와 작가와의 만남, 워크숍 등을 아우르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팝업스토어보다 체류 시간을 늘리는 예술 콘텐츠와 공간 구성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게 특징이다.

기술로 고객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브랜드 철학도 적용했다. 전시 관람과 함께 개인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는 'AI 아트 메이트'를 도입해, 각각의 경험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 낸다.

휴대폰 판매 매장도 고객 체험형으로 전환 중이다. 고객들이 직원의 권유나 판매 압박이 매장을 방문하는데 부담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심플랩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올해 중 공식 앱에 '매장안내 에이전트'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고객 접점을 일반 매장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 AI 에이전트로 진화한 '익시오', 미래 소통의 핵심 기술로

"음성을 또 다시 사람들을 연결하는 본질적인 수단으로 만들 것."

홍범식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초 글로벌 이동통신 전시회 'MWC26'에서 보이스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공개하면서 꺼낸 말이다.

기술과 사람의 연결 수단으로 가장 먼저 음성 전화를 지목한 것이다. 홍 CEO는 당시 다양한 감정이 오가는 음성 통화의 기능에 주목하고, AI를 미래 소통의 핵심 기술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AI 비서에 가까웠던 '익시오'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며 스스로 맥락을 찾아 수행하는 AI 콜 에이전트로 거듭나고 있다. 익시오는 현재 통화 요약과 보이스피싱 탐지 등으로 고객에게 고도화된 통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향후에는 고객의 상황을 파악해 일정 조정이나 정보 탐색 등 일상적인 업무를 돕는 서비스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AI 모델은 통신 분야에 특화한 소형언어모델 '익시젠'이다. LG유플러스는 그룹 내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엑사원'을 기반으로 안전성 검증 등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AI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 통신업 기반 체질 개선…글로벌 AI SW 기업으로 도약

장기적인 사업 전략은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서비스 '익시오'와 AI 인프라 '엔터프라이즈 AI 풀스택'을 통해 B2C·B2B 시장을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2027년부터 '익시오'를 해외 통신사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익시오에 보이스 AI 기능을 더해 '익시오 프로'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보이스 AI는 맥락과 감정을 파악해 이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이를 익시오와 결합해 AI 에이전틱 서비스로 개발하고, 로봇부터 각종 디바이스와 스마트 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품화한다.

기업 고객에는 기업의 AI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판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프라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AI 풀스택을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AIDC) 사업은 LG그룹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하고, 2027년 준공 예정인 파주 AIDC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객사의 데이터센터를 설계·구축·운영(DBO)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에 인프라 구축부터 운영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CEO는 올해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의 지향점은 통신과 AX 기술의 솔루션화를 주도하는 AI 중심의 SW 기업이 되는 것"이라며 "통신 인접 영역에서 확보한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행복이란 건
누구에게나
당아야 하잖아요?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로

온 국민의 내일을 밝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 행복시대

국민 누구나 행복에 가까이

KB국민은행이 함께 합니다

Korea Better
KB국민은행



국민의 오늘이 행복하게

KB마음가게 **요식업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맞춤형 홍보**
KB희망금융센터 **신용상담·채무조정 및 심리상담 지원**



청년들의 도전이 행복하게

KB굿잡 취업 박람회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KB인재양성 **전국 청년 AI 인재양성 프로그램**



아이들의 내일이 행복하게

KB작은도서관 **문화소외지역에 도서관 건립**
KB온종일 돌봄 **전국 아동 방과후·야간 돌봄 제공**

KB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KB금융그룹의 포용금융 프로젝트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892호(2026.02.27.) 유효기간 2026.02.27.~2027.02.26.까지

KB 국민은행

성장 36번 외친 李 대통령… 820조로 민생·미래 동시 공략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성장의 성과,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
핵심 축 '3대 민생 프로젝트'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었다. 연설문에서 '성장'은 36번 등장했다. '투자'와 '지원'도 각각 24번 언급됐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통해 경제 성장의 지속과 그 성과의 확산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성장 확산 예산'이라는 표현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처음 쓰였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과 정상화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서두에서 취임 후 지난 1년 5개월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반등 전망과 상반기 성장률 3.8%,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까지 고르게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언급하며 이런 성과에도 불평등과 양극화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에 띄는 것은 민생정책을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3대 민생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이를 '모두의 성장'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내세웠다.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매트'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역시 이를 기반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투자와 민생 지원을 별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성과가 다시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한 셈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방향이 반영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동시에 청년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국토대전환과 지방 주도성장에 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를 연결하는 핵심 장치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청년, 미 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성장 확산 예산'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면서 성장의 온기가 개인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청년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을 36번, '지원'과 '투자'를 각각 24번 언급했다. '국민'은 23번, '미래'는 16번이었다.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병행하겠다는 의도가 여기서도 드러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색과 회색이 사선으로 교차하는 넥타이를 매고 연설했다. 청와대는 "신뢰와 책임을 뜻하는 두 색상을 통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162조 기금 적절성 놓고 여야 '신경전'

예정처 주최 2027 예산안 토론회
민주 "기금의 균형 있는 운용 중요"
국힘 "재정 통제 우회하는 수단"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을 초청해 2027 예산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태홍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도 예산 정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8.3%로, 절대금액은 전년(1413조8000억원) 대비 늘어나지만 국가채무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분야별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9.7%가 증가한 41조2000억원, 연구·개발(R&D) 분야가 11.2% 증가해 39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20.4% 증가해 1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담대한 투자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경제에서 담대한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사업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예산안 심사 때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선 정부가 총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양당 예결특위 간사의 입장이 갈렸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계정을 담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45조4000억원의 사업 지출 중 청년 계정에 13조3000원을 편성해 일자리·창업, 주거 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을 지원한다. 또한 성장동력 계정엔 14조2000억원을 편성해 AI·전략기술, 지분 투자, 전력·용수 인프라에, 지방 계정엔 10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방성장, 생활편의시설, 행정통합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계정엔 7조6000억원을 편성해 첨단인재 양성, 고등·영유아 교육을 지원한다.

정태호 예결특위 여당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혁신, 반도체 경기 둔화를 대비한 안전판 확보, 국가 부채 비율 관리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의 균형점을 찾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사업 계정들의 사업들이 추후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은 (예산안 심사 때)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여유자금 104조원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상범 예결특위 야당 간사는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깎아내렸다. 유 간사는 "국민의힘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첫째, 기금의 연도별 수입 지출 내역과 여유자금 잔액을 원점에서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 기금 여유 자금 104조4000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채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조정하겠다"며 "국회 의결 없이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현재 30%)를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통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교섭 문 열렸지만… 노란봉투법 현장 혼선

›› 1면 '시행 7개월'서 계속

다만 이번 합의는 4개 자회사 노조와 맺은 것으로, 따로 교섭하는 사내 협력업체 노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

첫 만남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던 사업장도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는 지난 10월8일 첫 상견례를 했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원청으로서 교섭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교섭 요구 노조 공고 시 웰리브지회도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월1일 이를 기각해 8일 첫 교섭 일정이 잡혔다.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도 교섭 대상과 논의 범위가 쟁점으로 남았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난 10월16일 창원컨벤션센터(세코·CECO)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공공연대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달 23일까지 다른 노조의 교섭 참여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직후인 지난 3월 교섭 요구가 제기된 이후 공고까지 7개월여가 걸린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12일 경남도와 창원시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두 지자체가 세코 용역노동자의 휴게시설·안전시설·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교섭할 책임이 있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경남도는 교섭 대상을 세코 용역노동자가 소속된 노조로, 논의할 내용은 노동위가 인정한 범위로 한정했다. 창원시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업장별 교섭 속도 차이의 원인을 판단하려면 사례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아직 과도기에 있다"며 "지금은 제도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내년 상반기까지 교섭 경과를 지켜보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과기정통부, 카카오 출신 AI 전문가 영입

국민 체감형 공공 AI 직접 개발



정부가 카카오 출신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영입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개발에 직접 나선다. 기존 외부 업체에 개발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개발자와 공공 부문 전문가가 협력하는 자체 개발 체계를 구축해 공공 AI 서비스의 개발 속도와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김세웅 전 카카오 AI 시너지 성과리더(부사장·사진)를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은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조직이다. 민간의 기술 개발 역량과 서비스 사업화 경험을 공공 부문에 접목해 국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외주 중심의 공공 정보화 사업과 달리 정부 조직 내부에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간에서 활동하던 개발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공공 부문의 AI 전문가와 함께 서비스를 직접 기획·개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단은 1단 1관 4팀 체제로 총 61명으로 구성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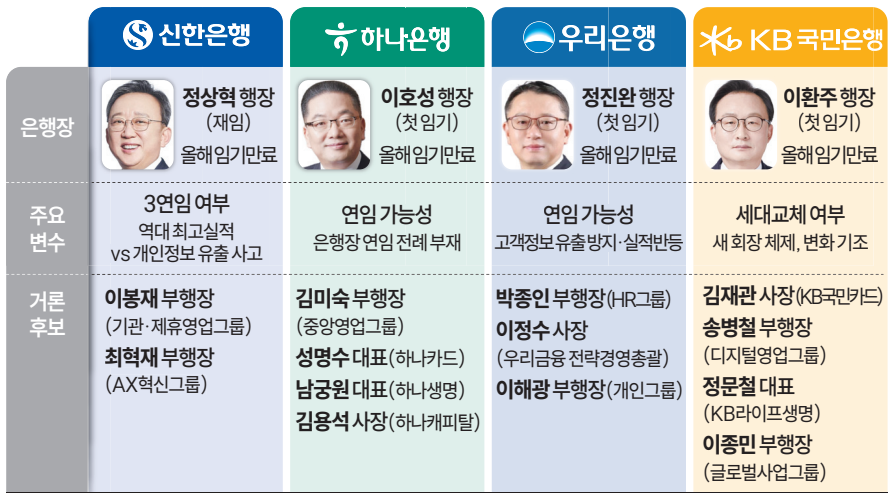
연임이냐 교체냐… 연말 임기만료 '4대 은행장' 인선 레이스

KB국민 '회장 교체' 핵심 변수로
이환주 행장, 실적만 보면 연임 유리

신한 정상혁 행장 3연임 여부 관심
차기후보에 이봉재·최혁재 등 거론

하나 전 행장 연임사례 없어 '변수'
김미숙·성영수·남궁원 등 후보군

우리 정보유출 방지·3분기 실적 반등
정진완 행장 연임 가능성에 무게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4대 시중은행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차기 은행장 후보군을 압축한 가운데 우리은행은 현직 행장의 연임 여부, KB국민은행은 새 회장 체제 출범에 따른 세대교체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정상혁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올해 첫 임기를 마친다.

각 금융지주는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 후보군 검증과 압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최근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의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1차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 최종 압축 후보군의 2~3배 수준으로 후보를 추린 상태로, 추가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숏리스트를 확정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6개 주요 계열사별로 3명 이내의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과 KB금융 역시 이달 중 후보군 압축과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한 뒤 12월 초·중순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정상혁 행장의 3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 행장은 재임 기간 신한은행의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지난 9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임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이봉재 기관·제휴영업그룹 부행장과 최혁재 AX혁신그룹 부행장 등이 거론된다.

이 부행장은 일본 SBJ은행 근무 등을 거친 영업 전문가로,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과 서울시 1·2금고 및 인천시 제1금고 운영권 유지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부행장은 디지털이노베이션그룹 상무 등을 역임한 디지털·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다. 신한 슈퍼SOL을 비롯한 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호성 행장의 연임 여부와 함께 새로운 인물의 발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하나은행은 지성규·박성호·이승열 전 행장이 모두 첫 임기를 끝으로 물러난 만큼 최근 연임 사례가 없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후보군으로는 김미숙 중앙영업그룹 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김용석 하나캐피탈 사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영업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미숙 부행장이 선임될 경우 하나은행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탄생하게 된다. 남궁 대표는 자금시장그룹장과 경영기획그룹장을, 성 대표는 외환사업단장과 기업그룹장 등을 거쳤다.

우리은행은 정진완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 행장은 올해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 속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고, 3분기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박종인 HR그룹 부행장과 이정수 우리금융 전략경영총괄 사장, 이해광 개인그룹 부행장 등도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최종 인선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KB국민은행은 차기 그룹 회장 교체가 은행장 인선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KB금융은 지난 9월 양종희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당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 필요성을 인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 회장 체제의 첫 주요 계열사 CEO 인사인 국민은행장 선임에도 변화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환주 행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을 전년 대비 18.8% 증가한 3조8620억원으로 끌어올리며 리딩뱅크 탈환을 이끌었다. 경영 실적만 놓고 보면 연임에 유리한 성적표를 확보한 셈이다.

다만 이 행장은 1964년생으로 차기 회장 후보인 이재근 부문장보다 두 살 많다. 앞서 그룹 회장 후보 선임 과정에서 이 부문장과 경쟁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는 김재관 KB국민카드 사장과 송병철 국민은행 디지털영업그룹 부행장,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이종민 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 등이 거론된다. 이환주 행장의 연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은행장 인사가 단순한 경영 성과 평가를 넘어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디지털 경쟁력, 그룹 지배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 규제방안 논의

현장에서

박상혁 민주당 의원, 간담회
"현행, 불법광고 적발 후 사후차단
플랫폼, 광고주 확인 의무화 제안"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외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금융광고 신뢰 확보' 간담회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재선 기자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광고주 사전 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정부가 검증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등록·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민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금융광고 신뢰 확보'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 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서민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발제는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남궁 교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근절을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플랫폼과 정부의 역할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궁 교수는 "현행 대부업법은 누가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규율하고, 불법광고가 적발된 이후에는 차단 등의 사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 중간 단계가 비어 있다. 광고를 의뢰한 사람이 실제 해당 업체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주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악한 고리를 통해 불법사금융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건수는 7855건으로, 전년(5292건) 대비 48% 증가했다. 적발 광고의 77.7%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궁 교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광고 플랫폼 사업자에 광고주 사전 확인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플랫폼이 광고주의 등록 자격과 대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공적 정보와 대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부는 검증에 필요한 공적 등록·인허가 정보와 감독·집행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플랫폼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도 설계를 위한 원칙도 제시했다. 위험 수준에 비례해 확인 의무의 강도를 정하고, 플랫폼의 확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최신 등록·인허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제도 도입의 선결문제가 논의됐다.

김대성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시·도별로 관리되며, 그 등록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지자체별 파일데이터 형태로 공개돼 있어 실시간 대조에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시·도의 등록원부 자체를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승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만일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자율규제의 자율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중소기업 위해 생산적금융 기반 정비를"

이억원 금융위원장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5극3특 핵심기업 지원확대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현실화 할 경우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여건도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16개 국내 은행, 신보 및 기보,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5극 3특 지역 내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가계대출과 부동산으로 쏠리던 자금흐름을 실물경제와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총 264조 3000억원을 생산적 분야에 공급하고 기업대출 잔액도 전년말 대비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충분히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신보 및 기보 특별출연을 통해 향후 3년간 4조5000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지방금융 공백 해소를 위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권이 3000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출연하면 신보와 기보는 약 15배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기업들을 심사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조기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도 개편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상생협력법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속히 수취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은행에 부여했던 50% 규모의 상환청구권도 폐지한다. 기존에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대출의 경우에도 2027년 1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상환청구권을 연장하지 않는다.

외담대 조기 상환 시 구매기업에 지급됐던 이자 환급금도 판매기업에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2차 이하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취급 구매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상생결제 이용업체 인센티브도 늘린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오는 2027년 1분기 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
갤럭시 A 시리즈 중심 점유율 확대

3분기 세계 출하량 2억5470만대
전분기比 20%↓… 시장 전반 위축
中 주요 업체 두 자릿수 출하량 감소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대화면과 AI 사용 경험, 대용량 배터리 등 일상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갤럭시 A18 LTE'를 국내 출시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위축에도 갤럭시 A 시리즈를 앞세워 세계 출하량 1위를 지켰다. 중국 주요 업체들이 두 자릿수 출하량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낙폭을 줄이며 점유율을 높였다.

2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2억5470만대로, 3분기 기준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출하량이 5% 감소한 5780만대, 점유율 약 22.7%로 1위를 유지했다.

옴디아는 메모리 공급 제약과 가격 상승 속에서 갤럭시 A 시리즈가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Z8 시리즈도 보상 판매 등에 힘입어 프리미엄 시장 입지 강화에 기여했다.

애플은 전년 동기와 같은 565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22.2%로 2위를 기록했으며, 삼성전자와의 출하량 격차는 130만대였다. 아이폰 17 수요와 가격 인상을 앞둔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가 출하량을 뒷받침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판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3위 샤오미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3070만대에 그쳤으며, 중국과 인도에서도 각각 20%, 28% 줄었다.

오포(리얼미·원플러스)는 39% 줄어든 2340만대로 4위, 비보는 33% 감소한 1930만대로 5위를 기록했다. 두 업체 역시 가격을 올리는 한편 유통 재고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옴디아는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교체 수요가 위축되고, 유통업체도 매입 비용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재고 확보에 신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진은 신흥시장에서 두드러졌다. 아프리카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으며, 중화권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 중남미에서도 20% 넘게 감소했다.

반면 북미는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시장 구조와 통신사의 단말기 할부·보상 판매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이처럼 시장별 수요가 엇갈리면서 제조사들도 수익성이 높은 시장과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옴디아에 따르면 보급형 제품이 주력인 업체들은 메모리 용량을 조정하고 출시 모델 수를 줄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옴디아는 추가 가격 인상과 할인 여력 축소로 올해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12% 감소하고, 내년에도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제조사들은 운영 비용을 줄이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장덕현 "MLCC 등 주력사업 성장기회 선점"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삼성전기 창립 53주년 기념식

장 사장, AI 기반 업무방식 전환 등 주문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2일 수원 사업장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기

"현재 AI 산업은 이제 '1월 1일'에 불과하다."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2일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창립 53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초기 단계에서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 패키지기판 등 주력 사업의 성장 기회를 선점하고, 실행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다.

삼성전기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장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세종·부산 등 국내외 전 사업장 임직원들도 사내 방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장 사장은 기념사에서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의 확장에 따라핵심 부품의 수요와 기술적 난도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MLCC와 패키지기판 등 우리의 주력 사업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대형 성장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기는 글로벌 파트너십, 독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검증된 생산능력을 모두 갖춘 만큼 이제 핵심은 '실행(Execution)'"이라며 "개발, 생산, 품질, 안전환경 등 전 영역에서 실행력을 발휘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 내자"고 당부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방식의 전환도 주문했다. 장 사장은 "AI 기술은 인간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며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전문화된 AI 에이전트(Agent)를 통해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화해 보다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본질적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임직원 시상식과 최고경영자(CEO)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장기근속상과 함께 임직원의 AI 역량 강화 및 업무 혁신을 위해 개최한 '사내 AI 해커톤' 우수팀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국GM, PHEV 중심 친환경 시장 공략

엘렉트라 E7 전면 배치… 기술 차별화



뷰익 '엘렉트라 E7'. /한국GM

한국GM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의 전기 주행 효율과 장거리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앞세워 국내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배터리 용량과 전기 주행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경쟁 PHEV보다 빠른 급속충전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국GM은 최근 서울 종로 S타워에서 'GM 테크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글로벌 전동화 전략과 PHEV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이달 국내 출시를 앞둔 뷰익 엘렉트라 E7이다.

엘렉트라 E7은 1.5ℓ 자연흡기 엔진과 165㎾ 전기모터, 최대 31.7㎾h 배터리를 결합했다. 배터리 전력만으로 복합 기준 최대 126㎞를 주행할 수 있으며 엔진과 모터를 함께 활용하면 통합 주행거리는 1000㎞를 웃돈다. 특히 일상적인 출퇴근과 도심 이동은 전기차처럼 모터만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장거리 주행에서는 엔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GM은 전동화 전략에서 PHEV를 일회성 제품이 아닌 주요 포트폴리오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GM의 국내 연구개발 조직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김영민 부장은 "PHEV는 GM의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북미를 포함한 모든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동화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구자균 "AI 전력수요, 확실한 해법은 직류"

〈LS일렉트릭 회장〉

국제배전협의회 워크숍

차세대 지능형 DC 전력망 비전 발표
"글로벌 산업 성장 견인 플랫폼 도약"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2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26 국제배전협의회(CIRED) 워크숍'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폭발하는 인공지능(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확실한 해법은 직류(DC)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은 2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26 국제배전협의회(CIRED)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지능형 DC 전력망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구 회장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려면 신뢰도 높은 전력망(Grids for AI)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전력망 생태계를 완성할 핵심 키워드로는 '직류'와 '지능형 플랫폼'을 꼽았다. 구 회장은 "과거 일방향으로 전기를 전달하던 송전 방식에서 벗어나 직류와 교류(AC)의 조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등 고객 맞춤형 전력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력 기기에 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유연하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지능형 양방향 에너지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것이 배전 산업의 다음 장"이라고 덧붙였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기조연설은 구자균 회장이 한국 전력 산업을 대표해 미래 전력망의 패러다임이 직류로 전환됐음을 세계 무대에 알린 것"이라며 "DC 플랫폼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배전 시장의 '룰 메이커(Rule Maker)'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시스템, '스마트 브릿지' 개발사업 수주

함정 자동화·무인화 핵심 기술 확보

한화시스템이 해군의 병력난을 풀 해법으로 꼽히는 '2인 조종 전투함' 기술 개발에 뛰어든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콕핏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브릿지 운용 기술'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로, 콕핏형 통합함교체계의 하드웨어인 콘솔 제작부터 소프트웨어인 통합 운용 프로그램 개발까지 모두 한화시스템이 담당한다.

콕핏형 IBS에는 IBS와 전투체계(CMS), 통합기관제어체계(ECS), 무인체계(UMS)가 단일 체계로 탑재된다. IBS는 선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자동으로 파악해 안전한 항해를 지원하고 CMS는 센서와 무장을 통합해 전투 지휘와 교전을 수행한다. ECS는 추진·전력·손상통제 계통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관리하며 UMS는 자율운항과 자율충돌회피를 구현한다. 네 기술 모두 한화시스템의 자체 기술이 적용된다.

유문기 한화시스템 해양사업부장은 "이번 수주로 함정 자동화와 무인화의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며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전략 아래 미래 무인함정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 라인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현대차, 인증중고차 정보제공 범위 확대

공식 센터 점검이력·배터리 상태 공개

현대자동차가 제조사 고유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 인증중고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현대인증중고차의 차량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이전 차주가 정보 활용에 동의한 차량에 한해 안전운전점수와 공식 서비스망 점검 이력을 공개한다. 안전운전점수는 최근 90일 이내 1000㎞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가속·급감속·급출발·심야 주행 횟수 등을 분석해 산출한다.

블루핸즈와 하이테크센터 등 공식 서비스망에서 진행한 블루안심점검 이력과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부동액 등 주요 소모품 교체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인증중고차는 판매 전 주요 소모품을 전량 교체해 상품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정보도 강화한다. 기존 고전압 배터리 상태(SOH)에 더해 셀 전압 편차와 배터리 온도 편차, 누적 충·방전 기록을 전기차 전용 점검리포트로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철강 살아나고 에너지 힘 보탰다” 포스코그룹, 3분기 연속 이익 증가

3분기 영업익 9450억, 전년比 48%↑
철강 판가 인상·판매량 확대 효과
포스코인터, 가스전 호조 실적 견인
이차전지소재 부문 17억 영업손실
순차입금 4.3조 줄며 재무구조 개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

포스코그룹이 철강 수익성 회복과 에너지 사업 호조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 원료비 상승 부담 속에서도 철강 판가 인상이 이익 개선으로 이어졌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도 견조한 이익을 내면서 그룹 영업이익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포스코홀딩스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9조1410억원, 영업이익 9450억원, 순이익 3800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9%, 영업이익은 47.9% 증가했고 순이익은 1.8% 감소했다.

재무구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인 현금 확보에 원화 강세 효과가 더해지면서 순차입금은 4조3000억원 줄었고, 부채비율도 6.7%포인트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유가 상승과 미 국채 금리 급등 등으로 경영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포스코그룹이 실적 개선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철강·이차전지소재·에너지를 축으로 한 ‘트리플코어’ 체제 아래 사업 간 수익성 상호 보완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철강 부문은 원료비 상승 부담을 판매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상쇄했다. 철강사업 법인 포스코의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4550억원으로 4분기 만에 4000억원대를 회복했다. 매출은 9조95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2% 늘었다. 다만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2.1% 줄어 아직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스전과 인도네시아 팜 사업의 생산 확대로 견조한 이익을 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0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했다. 매출은 9조268억원으로 9.6%, 순이익은 4018억원으로 91.6% 늘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수주 증대 등으로 전분기 대비 4% 늘어난 48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이차전지소재 부문은 아직 부진했다.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판매 회복과 판가 상승에 힘입어 82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글로벌 리튬 가격 하락에 포스코아르헨티나의 동절기 감산까지 겹치면서 부문 전체로는 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이차전지소재·에너지 등 주력 사업 전반에서 생산능력을 늘리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철강 부문에서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4800억원을 투입해 연산 45만톤 규모의 자동차용 용융아연도금강판 공장(8CGL)을 짓고 있다. 2028년 완공되면 자동차강판 생산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전략자원 부문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ESS와 보급형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 포항 양극재 공장 일부 라인을 LFP용으로 전환했고, 수주 물량에 맞춰 생산능력을 10만5000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룹 차원에서는 양극재 원료인 리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아르헨티나가 지난달 준공한 리튬 2공장은 2027년 하반기 램프업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이익에 기여할 전망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삼양그룹, 내부 인사 전면에 조직 안정화

김지섭·정지석 차기 대표 내정
43년 몸담은 엄태웅 대표 용퇴
조직 내실 강화에 인사 초점


김지섭 삼양홀딩스 스태프그룹장


정지석 삼양사 식품그룹장

삼양그룹이 지주사 삼양홀딩스와 주력 계열사 삼양사의 차기 대표이사로 내부 출신인 김지섭 부사장과 정지석 식품그룹장을 내정했다. 이들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1983년 입사해 43년간 그룹에 몸담은 엄태웅 대표는 용퇴한다. 그룹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앞세워 담합 사건 이후 흔들린 조직을 안정시키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양그룹은 조직 안정화와 내실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화와 내실 다지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룹 내에서 성장한 임원 2명을 사업부문 그룹장으로 선임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경험이 풍부하고 관록 있는 인재들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

김지섭 부사장은 삼양홀딩스 Staff그룹장으로 승진해 재경실장을 겸하며 지주사를 이끈다. 1961년생인 김 그룹장은 1988년 삼양사에 입사해 비서팀장과 회계팀장을 거쳤다. 2019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삼양홀딩스 재경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재무통이다. 그룹은 준법문화를 내재화하고 재무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김 그룹장에게 맡겼다.

1983년 입사한 엄태웅 대표는 담합 사건 이후 어수선했던 조직 분위기가 수습됐다고 판단해 용퇴를 결정했다. 지난 6월 일본 향료 기업을 인수하면서 스페셜티 식품 사업을 키울 발판이 마련된 점도 고려했다.

엄 대표가 다져 놓은 스페셜티 식품 사업은 정지석 식품그룹장이 이어받는다. 1971년생인 정 그룹장은 1995년 삼양사에 입사해 식품마케팅팀장, 마케팅총괄, HRC장, 식품BU장을 두루 거쳤다. 올해는 공석이던 식품그룹장 직무대리와 식품BU장을 겸하면서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삼양사 식품그룹은 정 그룹장 체제에서 스페셜티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CJ대한통운 상생 지원에 소상공인 매출 ‘쑥’

물류비 지원·유튜브 홍보 시너지
참여업체 매출 최대 600% 증가

CJ대한통운이 물류·홍보를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참여업체 중 한 곳인 ‘온담푸드’는 캠페인 참여 이후 매출이 기존 대비 60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CJ대한통운은 식품 소상공인 상생 캠페인 ‘함께사네, 가치오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제품 홍보와 판매 이벤트를 연계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중소 식품 브랜드를 소개해 호응을 얻었던 ‘만원리뷰’의 후속 프로젝트로, 올해는 ‘대국민 택배 맛집 발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우수 식품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난 4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 공모에는 전국 식품 소상공인 226개사가 지원했다. CJ대한통운은 제품 경쟁력과 배송 적합성 등을 평가해 27개사를 선정하고 배송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선발된 10개사에는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과 판매 이벤트를 추가 지원했다. 제품 홍보에는 CJ대한통운 유튜브 채널 ‘이게오네’와 구독자 86만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흑백리뷰’가 나섰다.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았던 2개 업체는 ‘흑백리뷰’ 본 채널에서도 소개했다. 영상 공개와 함께 제품 판매 이벤트도 진행해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소비자 관심이 실제 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코그페서 건강한 밥상 만나요”

대숲천년쌀·경기미 등 햅쌀 풍성
못난이 파프리카도 합리적 가격
15개 온라인몰 연계 특별기획전



이달 15일까지 펼쳐지는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에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K-쌀’ 등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더욱 저렴하고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코그페 대표 주관사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따르면 부엌에는 ‘대숲천년쌀’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영산강을 품고 있는 청정지역 담양에서 자란 새청무 품종의 쌀로, 낮은 단백질 함량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품은 올해 재배한 특등급 햅쌀로 신선하며 우수농산물 관리 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지우는 전북 남원과 익산 산지에서 직송하는 ‘못난이 파프리카’를 판매한다. 못난이 파프리카는 이름 그대로 미세한 흠집이나 불규칙한 모양 때문에 B품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맛과 신선도는 정품과 다름없어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비타민 C를 비롯한 풍부한 영양소와 낮은 열량으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려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못난이 파프리카는 27년 이상 파프리카만 재배해 온 베테랑 스마트 농장 ‘지지팜’에서 생산한다.

태린농산은 ‘경기미’를 내놨다. 태린농산의 경기미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경기도의 토양에서 재배한 고품질 쌀로, 신선도가 높아 쌀알에 윤기가 흐르고 미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밥으로 지었을 때 부드럽고 찰진 밥맛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창영마켓은 ‘새청무햅쌀’을 판매한다. 새청무는 전남농업기술원이 7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으로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하며, 밥을 지으면 윤기와 찰기가 흐르는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올해 재배한 새청무 햅쌀 중에서도 특등급으로 분류된 쌀만 담았다.

한유원은 이번 코그페 기간 중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모션도 펼친다.

G마켓, 11번가, 롯데온 등 15개 주요 온라인 유통플랫폼과 사이소(경북), 전북생생장터(전북), 강원더몰(강원), 남도장터(전남광주), 농사랑(충남) 5개 로컬상품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네이버쇼핑과 연계해 소상공인 대표 우수 상품 100개사 특별기획전도 준비했다. /김승호 기자

청년창업기업 판로 개척 산업AI 엑스포서 ‘결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졸업기업의 판로 지원 등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달 21~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산업AI EXPO’에 청창사 졸업기업 14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업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잠재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시회 기간 청창사 통합관에는 총 2634명이 방문했다. 또 14곳 참가기업은 제품 상담 834건과 바이어 발굴 143건의 성과를 거뒀다.

중진공, 청창사 졸업기업 14곳 지원
상담 834건·바이어 발굴 143건

그레이트비 김태경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의 AI 활용 수요와 도입 시 검토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담 기업과 후속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고객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바이어와의 협력 논의도 이뤄졌다. 오권석 오가네 프로그램 대표는 일본 도쿠시마시 소재 산엑스(SANX)로부터 기존 시스템 사용자와 연계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문의를 받았으며 시코쿠IT 협동조합 및 파트너사 250개사와의 제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태안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수주 가시권

LS전선·LS마린솔루션, 협약 체결
504MW 규모 생산·시공 일정 확보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504MW 규모 태안해상풍력 해저케이블 사업 수주에 한발 다가섰다. 양사는 본계약에 앞서 케이블 생산설비와 포설선 일정을 확보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본계약을 맺고 생산부터 설치까지 턴키로 수행할 계획이다. 신안우이해상풍력에 이어 양사가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추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2035년까지 55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LS그룹의 입지도 한층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태안풍력발전과 해저케이블 공급·시공을 위한 CRA(Capacity Reservation Agreement, 생산·시공 일정 확보 협약)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원관희 기자



LS마린솔루션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 /LS전선

28 AI INNOVATION

풀스택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LLaMON
AX통합플랫폼

ARAG
Graph RAG

멀티
에이전틱빌더
MCP/A2A

VLM OCR
Voice

복지AX
복지상담·안내

디지털집현전 AI
민원상담 AI

Document AI

LLM 모델
최적화 및 튜닝
LLM/MLOps

MESIM AX
AI연계플래폼
시장 점유율 1위

ESB

APIG
Gateway

망/SAP
연계

Dashboard
Observability
Monitoring

MCP
Gateway

AI연계개발
장애 Agent

KLEVER
디지털트윈
휴먼플랫폼

자율주행
교통

도시
산단
건설

디지털휴먼
플랫폼

레이더검지
AI영상검지

철도
항공
드론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 www.metabuild.co.kr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네이버 '페이스사인'으로 입장하고 카카오가 빚은 복합문화시설 즐긴다

공연장으로 영토 확장

네이버, 관람객에 페이·멤버십 연결
증강현실 길 안내 기술도 검토 중

카카오, 내년 '서울아레나' 개관
음악·공연 사업과 인프라 연계



/AI가 만든 이미지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형 공연장을 앞세워 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색과 메신저 등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두 기업이 공연장을 새로운 이용자 접점이자 사업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네이버는 멤버십 혜택과 기술 체험 확대에, 카카오는 공연장 운영과 콘텐츠 사업의 수익 다각화에 무게를 두면서 서로 다른 오프라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의 명명권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부터 3년간 공연장 명칭에 '네이버 아레나'를 사용한다.

네이버가 주목하는 것은 공연장 자체의 운영 수익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사 서비스와 기술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있다. 대규모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네이버페이와 멤버십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온라인에서 형성된 이용자 관계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페이의 안면인식 인증 서비스 '페이스사인'이다. 얼굴 인식만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기술을 공연장 입장 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지갑 서비스 '네이버페이 월렛'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입장 인증도 협력 대상이다.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증강현실(AR) 길 안내 역시 검토되고 있다. 공연장 내부와 주변 공간을 디지털 환경에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람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연장 방문부터 입장, 이동에 이르는 과정에 네이버의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앞서 서울 종로구 e스포츠 경기장 '지치지 롤파크'의 명명권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성수동에서 멤버십 전용 축제 '넾페스타'를 개최하며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해 왔다. 넾페스타에서는 페이스사인을 활용한 입장과 네이버페이 결제, NFT 스탬프 투어 등을 선보였다.

이 같은 행보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를 오프라인 경험으로 연결하고 멤버십의 체감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연과 행사 참여 경험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카카오는 공연장 건설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만8296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을 비롯해 중형 공연장과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강점은 음악과 콘텐츠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악·공연 사업과 대형 공연장 인프라를 연계하면 콘텐츠 기획부터 공연 개최, 팬덤 서비스까지 사업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공연장 대관과 상업시설 운영, 기업 스폰서십 등을 통한 수익 확보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네이버가 공연장을 기술과 서비스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카카오는 공연장 자체를 콘텐츠 사업의 기반 시설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공연시장 성장세도 양사의 오프라인 진출을 뒷받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연 티켓 판매액은 1조7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중음악 공연 티켓 판매액은 9817억원으로 29% 늘었다.

다만 두 기업의 사업 방식이 다른 만큼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공연장 방문객의 서비스 이용 확대와 멤버십 혜택 강화가, 카카오는 공연장 가동률과 콘텐츠 연계 수익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확보한 이용자 기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면서 공연장이 새로운 경쟁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며 "단순한 브랜드 노출을 넘어 기존 서비스 이용과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네이버-지멘스, 산업용 AI 협력 논의

지난달 3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태평양 독일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최수연 대표(가운데)가 지멘스그룹 롤랜드 부시 회장(오른쪽)과 '산업용 인공지능'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모습. /네이버

KT-삼성전자, 야구장 통신망 혼잡 개선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 공동 개발
AI 셀트윈 통해 최적 운영안 도출
트래픽 불균형 최대 34% 개선 확인



KT와 삼성전자 직원들이 지난 10월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야구 경기 중 AI 셀 트윈에 기반한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 /KT

KT가 삼성전자와 데이터 사용량이 집중되는 환경에서 기지국 간 트래픽 불균형을 최대 34% 개선했다.

KT는 삼성전자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을 검증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사가 공동 개발한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은 AI가 최적의 네트워크 운용 방안을 도출하고 사전에 검증한 뒤 실제 무선망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AI 셀 트윈'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가상의 통신 환경에서 모바일 사용 패턴과 트래픽 변화를 임의 설정해 다양한 네트워크 운용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기존 운용 자동화 기술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이나 개별 지표를 중심으로 동작하는 반면, 해당 기술은 AI 셀 트윈이 구현한 가상 통신 환경에서 사용자 분포·사용 패턴·네트워크 상태·체감 품질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운용 방안을 도출한다.

기술 실증은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진행했다. KT위즈파크에서 수집한 무선망 데이터로 AI 셀 트윈을 구성하고 자율 운용 기술의 인공지능(AI)을 학습시켰다.

야구 경기장은 관중이 대규모로 밀집과 영상 시청 및 공유로 인해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시간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환경이다. 일부 구역에 데이터 사용량이 집중되면 무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어 자율 운용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AI 학습 이후 KT위즈파크 홈 경기에서 자율 운용 기술을 검증한 결과, 양 사는 특정 기지국에 집중된 트래픽이 주변 기지국으로 분산됐음을 확인했다. 기지국간 트래픽 불균형은 최대 34% 개선됐고 특정 기지국에 집중되는 부하는 최대 16% 감소했다. 특히 AI 셀 트윈의 예측 결과가 실제 관측된 무선망 데이터와 높은 수준으로 부합했다.

이번 가을 야구 경기에도 무선망 자율 운용 기술 실증을 이어가고,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삼성SDS, 4273억 투입해 60MW급 조성

최대 120MW까지 확장

삼성SDS가 60MW급 구미 AI 데이터센터 착공에 나선다. 최근 그룹사에서 밝힌 60조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 계획 발표 이후 나타난 첫 성과라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일 삼성SDS는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착공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미 AIDC는 4273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1만4000여평 부지에 초기 전력 용량 60MW 규모로 조성된다. 최대 120MW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AI 인프라로 조성된다. 올해 8월 말 착공 승인을 받은 이후 공사 진행 중으로, 2028년 말 준공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7월 영남을 글로벌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약 6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삼성SDS는 제조·로봇 자동화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구미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AI 산업 생태계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삼성SDS가 30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설계됐다. 인공지능(AI)과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비스에 최적화된 고전력 IT 장비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냉각과 전력 인프라 전반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할 대규모 전력 인프라와 비상전원 체계 등을 구축해 서비스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서버룸에서 발생하는 고발열 제어를 위해 공냉식과 수냉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쿨링' 기술도 있다. 상대적으로 발열이 낮은 일반 서버에는 공냉식을, 고밀도 GPU 서버에는 물을 순환시켜 열을 식히는 수냉식을 적용한다.

특히 제조 RX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 관계사에게 AI 인프라를 지원한다. 현장에서 정밀 작업을 하는 로봇에게 AI 학습을 시키는 등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조민선 기자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30MW급 AI 데이터센터 준공식에서 현신균 LG CNS 사장(오른쪽 두 번째)과 시나르마스그룹 프랭키 O. 위자야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 하고있다. /LG CNS

LG CNS, 인니 자카르타에 30MW급 준공

해외에 설계·구축·운영 역량 입증

LG CNS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해외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30MW급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 구축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데이터센터 완공 전부터 전체 수용 용량 만큼 고객 확보를 마쳤으며, 국내에서 축적한 AI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역량을 해외 시장에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그룹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 'KMG'가 지난해 발주했다.

LG CNS는 이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확장형 인프라로 설계·구축했다. 고발열 AI 서버의 특성을 고려해 공랭식과 액체냉각을 복합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구조를 도입했다.

이번 사업에는 '원 LG' 통합 솔루션을 적용했다. LG CNS의 DBO 역량을 중심으로 LG전자의 공조 시스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등 그룹 내 핵심적인 전력·냉각·에너지 인프라가 활용됐다.

LG CNS는 현재 후속 단계 구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전용량 400MW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해외 AI 데이터센터 사업 레퍼런스를 활용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AI데이터센터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조민선 기자

디지털엑스, 수장 교체… 박현주표 '디지털 금융' 속도 낸다

〈미래에셋그룹 회장〉

오세진 대표, 사임 의사 밝혀
그룹 디지털자산 부문 150조 목표
증권·운용 연계한 토큰화 추진



미래에셋그룹의 디지털 금융 구상을 실행할 디지털엑스가 새 수장을 맞을 전망이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래에셋그룹의 디지털 금융 구상을 실행할 디지털엑스가 새 수장을 맞을 전망이다. 인수 이후 브랜드를 바꾸고 자본을 확충한 데 이어 오세진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경영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현주 회장이 디지털엑스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의 역할을 주문한 만큼 차기 경영진이 그룹의 금융 역량을 어떤 사업으로 연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측은 이달께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엑스 측은 "현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며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20년 디지털엑스의 전신인 코빗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말 재선임돼 당초 임기는 2028년 말까지였다. 구체적인 사임 배경과 후임 인선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차기 대표로는 미래에셋그룹 인사가 거론된다.

◆거래소 너머로…박현주 GSO의 다음 수

박 회장은 지난 8월 디지털엑스 임직원 초청 행사에서 "디지털엑스를 미래에셋 3.0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룹 디지털자산 부문을 15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디지털엑스는 2027년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주요 사업 축으로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을 꼽았다. 가상자산 매매 중개에서 나아가 금융·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시장까지 사업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1분기 토큰화 상품 출시를 목표로 기관전용 사모 MMF와 사모채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토큰화는 금융상품 등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통합투자 플랫폼 'MAPS'에서는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법인에서는 디지털채권 발행 등 관련 경험을 쌓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자산운용의 상품 설계·운용 역량과 디지털엑스의 거래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업 상품과 일정은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미래에셋은 인수 이후 경영 기반도 정비해왔다. 올해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약 1414억원에 코빗 지분 97.15%를 확보한 뒤 법인명과 서비스명을 디지털엑스로 변경했다. 약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다.

지난 7월에는 채창선 미래에셋컨설팅 대표와 권범규·이성기 사내이사가 디지털엑스 기타비상무이사로 합류했다. 사무실도 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센터원 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흑자 겨냥…그룹 협업으로 수익 확대 노려

차기 경영진은 사업 확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디지털엑스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약 98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늘었다.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약 154억원으로 영업수익을 웃돌았다.

현재는 고객 유입을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8월 24일부터 1년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신규 앱 이용을 유도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수수료가 영업수익 대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확보한 고객을 향후 수익으로 연결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엑스는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112개와 이더리움 800개를 매각하는 계획도 공시했다.

사업 확장에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디지털엑스는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으로 나뉜 시장을 연결하는 '디지털자산 통합 시장거래업' 신설을 제안해왔다. 토큰화한 금융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 취급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는 관련 법과 인허가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매도대금 조기 지급에 반대매매도 단축

거래소,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2028년 증시 결제 단축 목표
개인투자자 영향 분석은 아직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이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개인투자자와 관련된 손익 분석은 아직 세부 통계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지는 않았다.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브리핑에서 개인투자자의 편익과 위험을 분석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매도대금을 하루 빨리 받는 대신 미수금 납부와 반대매매도 앞당겨지는 만큼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매도대금도 미수금도 하루 빨리

결제주기가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되면 주식을 판 다음 영업일에 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반면 미수거래 투자자의 대금 납부 시한도 다음 영업일로 당겨진다. 미수금 미납에 따른 반대매매는 T+3일에서 T+2일로 빨라진다. 착오매매 정정 시간도 하루 줄어든다.

박 본부장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하루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매수자는 하루 더 빨리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편익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 전체의 결제위험 감소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결제 상태로 남는 기간이 짧아지면 증권사 등이 납입하는 증거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결제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이틀에서 하루로 줄어들면 증거금 필요액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 전에는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투자자의 부담을 던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고객 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김희문 한국증권금융 기관금융본부장은 "금리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증권금융의 자금 지원으로 증권사들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8년은 목표"…외국인·업계 준비가 변수

2028년 전환은 확정된 시행일이 아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내년 10월까지 인프라를 개편하고,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준비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테스트를 진행한다.

박 본부장은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외국계도 포함돼 있어 기관별 준비 역량과 여건이 다르다"며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이행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자는 시차와 환전 부담이 크다. 해외 증권사·보관기관·투자자 등 32개사 조사에서는 27개사(84.4%)가 2028년 하반기 이후 전환을 희망했다. 준비 부족 상태에서 전환하면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7개사도 있었다. 다만 거래소는 이들의 지역별 분포나 투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콩의 전환 목표가 2028년 하반기로 연기된 점도 고려됐다. 박 본부장은 "홍콩의 영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같은 권역의 시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체 개편 비용도 아직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산개발·유지보수와 야간 근무 인건비 등이 들지만 회사별 여건이 달라서다. 박 본부장은 "내년 중·하반기 정도에 전체 비용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통합테스트를 수행해야 실제 가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앤트로픽, IPO 이후에도 투기등급 전망

신용등급 우려에 자금조달 부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차입 비용과 투자자 확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2일 외신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블랙스톤이 앤트로픽의 AI 반도체 금융 조달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상장 이후에도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투기등급 상단 수준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랙스톤은 당초 앤트로픽이 연말 이전에 투자적격 등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안내를 반영해 전망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등급으로는 투자적격에 못 미치는 BB급이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투자적격 등급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기준 BBB- 이상, 무디스 기준 Baa3 이상이다.

블랙스톤은 앤트로픽과 브로드컴의 630억달러 규모 AI 반도체 금융 조달 계획인 '프로젝트 노스스타'의 핵심 투자자다. 이 프로젝트는 앤트로픽이 구글과 브로드컴이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인 텐서처리장치(TPU)를 1.5기가와트(GW) 규모로 임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420억달러 규모 선순위 채권은 브로드컴이 보증하고, 180억달러 규모 후순위 채권은 앤트로픽이 지급하는 임대료를 담보로 한다. 후순위 채권은 신용평가사 크롤본드레이팅에이전시(KBRA)와 모닝스타 DBRS로부터 투기등급인 B+를 받았다. 이는 해당 채권에 대한 평가로, 앤트로픽의 상장 후 기업 신용등급 전망과는 구분된다.

앤트로픽은 IPO 투자설명서에서 2045년까지 컴퓨팅 인프라에 8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약정을 공개했다. 상장으로 자본을 확충하더라도 장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회사채 발행 등 추가 차입이 필요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넥스트증권, 김승연 대표 재선임

리테일 사업 확대 속도



넥스트증권은 지난 10월 14일 이사회에서 김승연 대표이사(사진)의 연임을 의결했다.

2일 넥스트증권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의 새로운 임기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2년이다.

2024년 10월 첫 임기에 취임한 김 대표는 파생상품 중개 중심이던 사업 구조에 AI·영상 콘텐츠 기반 리테일 사업을 추가하는 작업을 이끌어 왔다. 새 임기에서는 리테일 서비스 출시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넥스트증권은 개인투자자 대상 리테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김정관 "1600조 민간투자… 韓 산업 도약의 결정적 기회"

〈산업통상부 장관〉

서울 페럼타워서 기조발표
반도체·AIDC·피지컬 AI 연계
인허가 일괄 처리·특구법 추진
민간투자 규제 해소·인프라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경기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M.AX 데이터 분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16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가 단순한 시설 투자를 넘어 국가 산업전환의 핵심 플랫폼으로 본격 도약한다. 정부는 민간의 대형 투자가 지체없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규제 혁신과 인프라 지원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공개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메가프로젝트를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기조발표에서 "'메가(Mega)'는 전례 없는 투자 규모와 대한민국 산업이 맞이한 역사적 기회를 상징한다"며 "총 160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은 사업 착수연도 GDP 대비 약 60%에 달하며, 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투자 규모(GDP 대비 2.4%)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산업의 선도자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1600조 원 전액이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필수 인프라와 제도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반도체 팹 가동을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으로 '반도체·AI데이터센터(AIDC)·피지컬 AI'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반도체가 AI 연산 능력을 공급하고, AIDC가 AI의 학습과 활용을 뒷받침하며, 피지컬 AI가 이를 제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가 산업 전반의 제조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재투자로 확산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완성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M·E·G·A'를 제시했다.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M(Mobilize)과 경제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E(Engage)를 통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G(Generate)와 경제 전반으로 성과를 확산하는 A(Amplify)를 이뤄내어 'MEGA 프로젝트'를 'MEGA 성장'으로 직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어진 발표와 토론 세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보완 과제가 제시됐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메모리 편중 구조를 넘어 시스템반도체와 소부장 생태계를 아우르기 위해 ▲K-Chips Deal ▲BIG 4 짜르(Czar) ▲한국형 반도체 혁신허브(K-IMEC & K-Foundry) ▲산업금융플랫폼 등 4대 정책 브릿지 도입을 주문했다. 박민원 창원대 총장은 공장 데이터와 장인의 숙련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업이 주인이 되는 '제조데이터 활용권' 보장과 함께 액추에이터·제어기 등 핵심부품 국산화 및 '다크셀' 기반 인재 양성 체계를, 정병선 서강대 교수는 하드웨어 구축을 넘어 현장의 AI 활용률을 높이는 '에이전트 확산'을 제안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이근 중앙대 석좌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공경철 KAIST 교수, 윤대균 아주대 원장, 백서인 한양대 부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들은 전력·용수 선제 공급과 글로벌 경쟁전략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집행 단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각계의 제언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체코 원전 시공협상 결렬에 정부 비상관리

장·차관 매주 사업현안 직접 점검
신규 시공사 선정·후속대책 마련
2029년 착공 등 주요 일정 사수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따른 전체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 종료(10월 29일)에 발맞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비상관리체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정해진 기간 내 예산 내 준공(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관리체제는 정부와 팀코리아 참여 기업 간의 긴밀한 공조를 축으로 한다. 이를 위해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는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이 주재하는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해 현안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해결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이날 오전 박동일 차관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주요 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향후 예정된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실행방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한국 원전의 진정한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Team Spirit)'에 있다"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 에너지 자립항만 전환 시동

BPA,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부산항만공사(BPA)가 에너지 자립항만 구축을 위해 '부산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등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공사는 이 제도를 활용해 항만 내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항만에서 직접 소비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고 풍력발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이처럼 항만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부산항 신항. /BPA

용역에서는 ▲국내외 분산에너지 동향 및 사례 분석 ▲부산항 전력 수요 및 공급계획 수립 ▲항만 특화 사업모델 발굴 ▲사업 타당성 및 규제특례 발굴 ▲참여사업자 발굴 및 선정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스마트팜 싱가포르 진출 발판 마련

공동위원회 설치·기술 교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싱가포르 정부와 스마트농업 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한국 농산업 기업의 현지 진출 및 K-푸드 수출 확대가 추진된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차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의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만나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또 스마트농업 기술과 정책·정보 교류, 관련 기업·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역내 식량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2013년부터 운영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누적 물량 78만 톤(t) 중 72%를 기여해 왔고 올해 역시 쌀 5천900t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PTERR은 아세안 지역에서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재난으로 식량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쌀을 비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김 차관은 데이터 기반 작물 생육 관리와 인공지능(AI) 병해충 예찰, 드론 방제 등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소개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싱가포르의 실내 수직농장 운영 기업인 그린파이토(GreenPhyto)를 방문해, 자동화·AI 기반 정밀농업 기술로 친환경 엽채류가 생산되는 현황을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교육도시 10곳 추가

기후부, 전국 광역 3곳·기초 7곳 선정

전국 10개 지방정부가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2026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환경교육 추진 실적과 기반이 우수한 광역지방정부 3곳(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과 기초지방정부 7곳(노원구,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천안시, 통영시) 등 총 10곳을 '2026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자체 계획 수립,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 고용서비스 노하우 남아시아에 전수

노사발전재단, 3개국 관계자 21명 초청

노사발전재단이 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 정부 관계자 21명을 한국에 초청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6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 연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하는 남아시아 5개국 공공고용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재단은 3개국 관계자에게 한국의 공공 고용서비스 정책 및 현장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각국의 여건과 비교해 살펴보고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과정을 비롯해 중앙·지역 간 서비스 전달체계, 노동시장정보시스템(LMIS),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의 구축·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와 고용행정통계 활용, 직업교육훈련(TVET)과 고용서비스의 연계, 청년 진로개발 지원정책도 다룬다.

한국외국어대 및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일정도 포함돼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대학생의 진로설계·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직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등 지역 기반 고용서비스가 구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일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약국 입점 상품
체내 흡수율 높은
활성화 비타민 D3
BORYUNG
보령컨슈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VITAMIN D 4000IU CHEWABLE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VITAMIN D
비타민D
100 μg / 일
1,000 mg x 60정(60 g)
오렌지맛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전주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공공구매 등 협력사업 추진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성료
국민연금공단·신협 등 업무협약
조지훈 시장 "함께 상생의 길 모색"



전주시는 '제12회 2026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협의회,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의체 등은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전주시 조지훈 시장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 '제12회 2026 전주 사회연대경제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내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홍보·판매·체험부스와 유관기관 홍보관 등 모두 45개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전시와 판매를 넘어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협의회, 사회연대경제기업 협의체 등은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포럼과 기업 IR 발표대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과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의 폭도 넓혔다.

조지훈 시장은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보고,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연결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사회공헌 활동까지 연계하는 협력 모델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훈 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시민들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공구매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참여와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주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지 주목된다.

/전주(전북)=김근호 기자
kmo245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정영두 김해시장 낙동강협의회 차기 회장 선출



김해시 정영두 시장(사진)이 낙동강 유역 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낙동강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김해시가 밝혔다.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정 시장은 최근 열린 하반기 정기회에서 참석한 7개 지자체 단체장의 만장일치 추대를 수락해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해시는 회장 도시를 맡아 지자체 간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생태 분야의 공동 협력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도, '경남웰컴센터' 오픈

경남도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수도권 주민의 경남 이주와 정착을 돕는 '경남웰컴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귀농뿐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등 다양한 이주 수요에 맞춰 상담한다. 시군·전문기관과 연계해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고, 경남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는 주민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 종합 상담은 10~11월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시범 운영한다.

도는 앞으로 18개 시군의 이주 지원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략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 팔 걷어

지페어 코리아서 전략 포럼 개최
기업·기관 협력… 정부 공모 대응

경기도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6' 현장에서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AI 대전환, 경기와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지원단 공공부문 단장인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김태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김선우 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기업인,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글로벌 AI 허브가 정책연구를 넘어 산업 현장과 도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 전시회 현장에 포럼을 마련했다.

도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지원단 논의에 반영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정부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기념관' 개관

미래세대 위한 교육 공간 활용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기념공원에서 열린 'APEC 기념공원 명칭 변경 현판 제막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1주년을 맞아 지난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을 'APEC 기념공원'으로 개칭하고 'APEC 정상회의 기념관'을 개관했다.

'경주 APEC, 기억을 넘어 기록으로, 가치를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칠레대사, 티무르 클라르제이 슈빌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새롭게 문을 연 기념관에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과 개최 성과를 담은 자료를 비롯해 실제 정상회의장과 한·미, 한·중 정상회담장을 재현한 공간, 회고 사진전, 미디어 콘텐츠 등이 마련됐다. 도는 기념관을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상회의가 남긴 역사적 유산과 국제적 위상을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경주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국제회의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목포시, 목포수산식품 수출단지 준공

강성휘 시장 "수산식품 산업 육성"

목포시는 지난달 30일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성휘 목포시장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과 수산업 유관기관, 수산식품 관련 기업·협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는 총사업비 약 1179억 원을 투입해 부지 2만 8,133㎡, 연면적 4만 6612㎡ 규모로 조성됐다. 임대형 가공공장 36개실을 비롯해 마른김거래소, 연구시설, 냉동·냉장창고, 수출지원 시설 등을 갖춰 수산식품의 가공부터 연구개발, 물류·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시는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연구개발과 제품 고부가가치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연계해 지역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성휘 시장은 "목포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은 목포 수산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목포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울진군 전 군민 독감 예방접종 지원

울진군이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며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군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울진군은 지난 26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관내 위탁 병·의원 12개소와 보건기관 26개소 등 총 38개소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전 군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인플루엔자 발생 없는 청정한 울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구미영스퀘어, 누적 이용객 2만명 '눈앞'

구미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청년 복합문화공간 '구미영스퀘어(Gumi Young Square)'가 개소 1주년을 앞두고 누적 이용객 2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 구미역 상업동 1~2층에 문을 연 구미영스퀘어가 오는 7일 개소 1주년을 맞는다고 밝혔다. 이곳은 청년라운지와 공유오피스, 웨딩테마라운지, 팝업 전시공간 등을 갖춘 청년 활동 거점이다.

개소 이후 석 달여 만에 누적 이용객 4000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총 1만 9626명이 이용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과 문화예술인, 대학 등과 협력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 활동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차역의 빈 공간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미영스퀘어의 지난 1년은 의미가 크다"며 "구미역에서 시작된 청년들의 활력이 원도심 곳곳으로 확산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구미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힐링승마 프로그램' 6회 운영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난 30일 장애인과 봉사자를 대상으로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의 '부울경 공감여행'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말 먹이주기와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총 6회 운영했으며, 모두 120명이 참여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앞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테마 '롯데타운 드림 라이트 가든'.


신세계 대구점 골든 위시 트리 조감도.



더현대 서울 크리스마스 H빌리지 랜더링 이미지.



갤러리아백화점 크리스마스 트리·외관 장식 /각 사

백화점, 크리스마스 새단장… 미디어아트·브랜드 협업 '눈길'

롯데 본점 외벽 전구 2만개 설치
신세계 '홀리데이 마켓' 확대 운영
현대 뉴욕 크리스마스 거리 구현
갤러리아 '로로피아나' 협업 연출

백화점업계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찌감치 연말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대형 트리와 화려한 조명을 넘어 미디어아트, 명품 브랜드 협업, 체험형 공간까지 동원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각 백화점이 차별화된 이야기를 공간에 구현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4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크리스마스 테마 공간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진 촬영 명소로 주목받으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효과와 함께 방문객 유입, 체류시간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명동에서는 롯데와 신세계가 빛을 활용한 연출로 경쟁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0일 본점 일대에 '롯데타운 드림 라이트 가든'을 공개했다. 올해는 유럽의 고풍스러운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꿈속 비밀의 정원'을 콘셉트로 정했다.

본점 외벽에 전구 2만개를 설치하고 을지로입구역부터 본관, 에비뉴엘까지 이어지는 약 100m 구간을 '빛의 스트리트'로 꾸몄다. 15m 높이의 하트 라이트 트리와 움직이는 디오라마, 약 50평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공간도 마련했다.

새로운 크리스마스 캐릭터 '헤이예티'도 선보인다. 기존 캐릭터인 '똔뚜'와 함께 연말 공간을 장식하며, 잠실점에서는 이달 중순 대규모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점에도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6일 본점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크리스마스 영상을 공개한다. 올해 주제는 '크리스마스 소원을 전하는 환상의 여정'이다. 곰이 소원을 담은 편지를 싣고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구현한다.

체험형 콘텐츠도 확대한다. 3회째를 맞은 '신세계 홀리데이 마켓' 운영 점포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지난달 30일 강남점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24일 본점, 27일 센텀시티점에서 차례로 운영한다.

강남점 마켓은 붉은 벽돌집과 타탄 체크무늬로 꾸미고 크리스마스 소품과 선물 판매, 타로와 캐리커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체 캐릭터 '푸빌라'를 활용한 캠페인도 오는 6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며, 대구점에는 별과 빛을 모티브로 한 '골든 위시 트리'를 설치한다.

현대백화점은 뉴욕의 크리스마스 거리를 국내로 옮긴다. 올해 주제는 '크리스마스인 뉴욕 시티'로, 1980~1990년대 뉴욕 특유의 도시적 감성과 빈티지한 디자인을 결합했다. 지난달 27일 무역센터점을 시작으로 이달 1일 압구정본점에 이어 오는 10일 더현대 서울에서도 관련 공간을 공개한다.

더현대 서울 5층 사운즈 포레스트의 크리스마스 마을 'H빌리지'에는 최대 10m 높이의 붉은 벽돌 건물 13개동과 대형 광고판, 네온사인, 노란 택시 등을 배치한다. 대표 캐릭터인 '아기 곰 해리'가 뉴욕 고양이들의 도움을 받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한다는 이야기도 담았다.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 정문 광장에는 13m 높이의 대형 트리와 포토존을 설치한다. 판교점에는 타임스스퀘어와 월스트리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뉴욕의 명소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선보인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송도점 등 4개 점포에도 크리스마스 공간을 조성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앞세웠다. 서울 명품관에서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와 외관 장식을 선보이고 있다. 운영 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명품관 이스트 광장에는 짚을 엮어 제작한 대형 트리와 금빛 조명을 설치했다. 건물 외벽은 로로피아나 로고와 별 장식으로 꾸몄다. 협업을 기념해 서울의 풍경을 담은 실크 스카프와 가방, 액세서리 등으로 구성된 한정 상품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롯데웰푸드가 지난 31일과 1일 홍대스퀘어 일대에서 '빼빼로 하트 어택' 행사를 진행했다. /롯데웰푸드

"빼빼로데이, 나눔 전하세요"

롯데웰푸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팝업·전용 매대 등 체험형 마케팅

롯데웰푸드가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형 마케팅을 확대한다. 도심 곳곳을 찾아가는 이동형 팝업 스토어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상권의 브랜드 체험 공간을 통해 빼빼로데이와 나눔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롯데웰푸드는 오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이동형 팝업 '빼빼로 하트 어택'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빼빼로 하트 어택'은 대형 랩핑 버스를 활용해 주요 상권과 학교, 대학가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대와 광화문, 성수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포토존과 커스텀 라벨 출력존, 게릴라 샘플링 등을 진행한다.

대학가와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사도 마련했다. 캠퍼스 어택은 5일 성신여대, 6일 서울시립대, 10일 광운대에서 진행하며 미니게임과 라벨 출력 체험을 통해 빼빼로를 증정한다. 스쿨 어택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한 중·고등학교 11곳에 제품을 전달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은 주요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는 스트레이 키즈 협업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븐일레븐 뉴웨이브 명동점에는 나만의 빼빼로를 제작할 수 있는 라벨 프린터 공간을 마련했다.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과 남포 타운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스트레이 키즈 포토존과 전용 매대를 운영한다. 스트레이 키즈 협업 기획팩과 일월오봉도를 활용한 패키지를 판매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관련 굿즈를 증정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빼빼로데이가 한국 특유의 따뜻한 나눔 문화로 각인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한국을 찾은 글로벌 관광객들이 일상 속에서 K-기념일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농심, 월마트 협력 강화… 美 소비자 공략

월마트 매장서 신라면 푸드트럭 운영

농심이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와 협력해 현지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맞아 대형 유통망과 글로벌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마케팅을 통해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농심은 지난 10월 한 달간 미국 아칸소·캘리포니아·플로리다·텍사스 등 4개 주에 위치한 월마트 48개 매장에서 신라면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신라면 시식과 포토존, 참여형 게임 등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푸드트럭은 넷플릭스 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콘셉트로 꾸며졌다. 방문객들은 작품 속 주요 캐릭터인 루미·조이·미라가 디자인된 신라면을 시식하고, 그룹 헌트릭스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이번 행사는 신라면 출시 40주년을 기념해 미국 주요 유통 채널인 월마트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약 47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로 광범위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농심은 2013년 월마트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에는 한국 식품 최초로 미국 월마트 전 점포에 신라면을 입점시키며 현지 유통망을 확대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케데헌의 인기가 만나 미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K-라면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현지 고객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미국 시장 내 신라면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百, '롯데몰 하노이' 누적 매출 1조 돌파

해외 진출 백화점 최초 1조 매출 점포

해외 진출 백화점 최초로 누적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점포가 나왔다.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개점 3년 만에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개점 122일 만인 2024년 1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600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분기 평균 20%의 매출 신장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누적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누적 방문객은 4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호찌민, 하노이 등 베트남 5대 도시 합산 인구(약 2300만명)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젊은 고객층부터 프리미엄 쇼핑을 즐기는 VIP 고객, 명절 모임 및 주말 나들이를 위한 가족 고객까지 폭넓은 고객층이 방문하며 하루 평균 방문객 5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신제품

롯데칠성음료

펩시 프리바이오틱 제로슈거



롯데칠성음료가 제로슈거에 식이섬유를 더한 펩시 신제품을 선보이며 탄산음료 제품군 확대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펩시 브랜드 최초의 프리바이오틱 제품인 '펩시 프리바이오틱 제로슈거 요거트향(사진)'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제품은 355㎖ 캔 제품으로 한 캔에 식이섬유 2.5g을 함유했다. 설탕을 넣지 않은 제로슈거 제품이며 펩시 특유의 탄산감에 상큼달콤한 요거트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오는 8일까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신상위크를 통해 단독 선출시된다. 이후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웅진식품

아침햇살·초록매실 한정판

웅진식품은 아침햇살과 초록매실의 한국공예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업연계 전통문화상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에디션 디자인에는 디자인 스튜디오 툴프레스가 참여했다. 아침햇살의 쌀과 초록매실의 매실을 손그림으로 표현하고 필기체 문구를 더해 기존 패키지와 차별화했다. /신원선 기자

케이캡 영업망 앞세운 HK이노엔… 의료기기 시장 진출

한국로슈진단과 플랫폼 판매계약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진단기기 결합
이달부터 국내 영업·유통 본격화

HK이노엔이 대표 품목 '케이캡'으로 다져놓은 의료 영업망을 발판 삼아 의료기기 시장으로 사업을 넓힌다. 자체 R&D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이미 검증된 글로벌 진단 플랫폼을 유통해 만성질환 관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HK이노엔은 한국로슈진단과 차세대 현장진단검사(POCT) 플랫폼 '코바스 클릭'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코바스 클릭은 당뇨 및 심혈관 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당화혈색소, 지질, C반응성단백질 등에 대한 검사를 외부 수탁검사 기관 없이 진료 현장에서 즉시 수행하는 통합 진단 플랫폼이다. 환자 손끝에서 채혈해 혈당 조절 상태부터 심혈관 위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현장진단검사(POCT) 플랫폼 '코바스 클릭' /한국로슈진단

이번 협약에 따라 HK이노엔은 이달부터 코바스 클릭의 국내 영업과 유통을 본격 전개한다. 시약의 상온 보관 및 최대 16개월 장기 보관 등 운영 효율성이 뛰어난 만큼, 최근 원내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단 편의성을 높이고 환자의 효과적인 질환 관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K이노엔의 이러한 의료기기 유통 사업 확장에는 케이캡 매출 창출과 공급 역량이 뒷받침됐다.

올해 3분기 HK이노엔은 매출액 2604억원, 영업이익 2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2% 줄고 영업이익은 0.6%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0.0% 수준이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케이캡 출고량 조절, 회계기준 변경 등 영향이 있었으나 케이캡 완제품 수출 증가와 글로벌 로열티 이익 기여가 지속되며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HK이노엔은 직접 개발 대신 유통 협력 모델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의약품(ETC) 사업으로 이미 수년간 다져놓은 의원급 네트워크에 진단 기기를 결합하는 형태여서 막대한 R&D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도 기존 인프라 가치와 매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플랫폼을 들여와 기존 영업망에 이식하는 방식은 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사업 위험을 낮추는 전략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고령화 가속화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현장 진단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개발 시간과 금전적 부담을 낮추고 시장에 즉시 안착할 수 있어서다.

앞서 분자진단 전문기업 HLB파나진은 유통을 바탕으로 중장기 고도화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바이오 기업 룩진테크놀로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장진단검사(POCT)를 포함한 분자진단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또 룩진의 장비와 카트리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품개발까지 검토하며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HLB파나진 측은 "안정적인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신약개발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중심의 POCT 시장 성장세는 물론 임상연구실, 실험실 등에서의 수요도 있어 검증된 제품 도입 흐름은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호빵보다 군고구마… 겨울간식 지형도 변화

편의점 3사, 올해 군고구마 매출 증가
식사 대용 건강 음식으로 수요 늘어

호빵이 굳건히 지켜온 겨울철 간식의 왕좌를 군고구마가 차지했다.

과거 군고구마 장수들은 동네 어귀에서 드럼통을 개조한 화덕에 고구마를 구워 팔았다. 2026년 현재 편의점의 대표 겨울 간식으로 자리 잡은 군고구마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배달 수요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2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3사의 올해 군고구마 매출이 일제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하며 겨울철 간식을 넘어 사계절 먹거리로 소비 범위를 넓히고 있다.


CU의 군고구마가 계절과 객층의 경계를 넘어 인기를 끌며 기존 겨울철 대표 간식이었던 호빵과의 매출 격차를 벌리고 있다. /BGF리테일

CU의 올해 1~10월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했다. CU의 군고구마 매출 신장률은 2024년 23.9%, 지난해 35.0%에 이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군고구마는 겨울철 대표 간식인 호빵을 제치고 편의점의 주요 즉석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CU에서는 2020년 군고구마 매출이 호빵을 처음 앞선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지난해 군고구마 매출은 호빵의 약 3배에 달했다.

GS25 역시 군고구마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10월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4% 증가했다. GS25는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군고구마를 가벼운 식사나 건강 간식으로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세븐일레븐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1~10월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세븐일레븐 역시 군고구마가 직장인과 체중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사이에서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군고구마 매출 증가를 이끄는 주요 고객층으로 떠올랐다. CU의 올해 1~9월 외국인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9% 증가했다. 지난해 42.7%였던 외국인 매출 신장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GS25의 올해 1~9월 외국인 군고구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71.4% 증가했으며, 세븐일레븐은 올해 1~10월 외국인 매출이 49% 늘었다.

/김서현 기자 seoh@

설화수, 매화 담은 홀리데이 컬렉션 선봬

하루 하나씩 여는 설렘 건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하얀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 한 송이가 고단했던 한 해를 다정하게 보듬고 다가올 내일에 따스한 설렘을 건넨다.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는 겨울 정원의 포근한 감성을 구현한 2026 연말 한정판 '대즐링 홀리데이 딜라이트'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주제는 동양 겨울 정원에서 싹을 틔우는 매화의 굳은 생명력과 경이로움이다. 옛 민화 속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은은한 은빛까지 활용해 설화수만의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와 함께 첫 스킨케어 단계에서 피부를 가꿔주는 윤조에센스를 비롯해 깊은 영양감을 갖춘 자음생크림, 진설크림, 맑은 안색을 표현하는 퍼펙팅 쿠션 에어리 등을 한 데 담았다. 각 제품마다 소나무, 산사나무, 매화 등 서로 다른 디자인을 넣어 연말 선물의 특별함을 전달한다.



설화수 2026 홀리데이 컬렉션 '대즐링 홀리데이 딜라이트' /아모레퍼시픽

또 하루에 하나씩 상자를 여는 즐거움 속에서 연말 하루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설화수 어드벤트 캘린더'를 함께 출시한다. 윤조에센스 30ml, 윤조 아이세럼 20ml, 윤조에센스미스트 50ml, 자정앰플세럼 30ml 등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설화수 관계자는 "한 해 동안 고생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 모두가 설화수를 통해 눈부시게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플라이마' 40mg PFS-S 국내 출시

셀트리온제약, 유플라이마 라인업 확대

셀트리온제약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의 40mg 프리필드시린지(PFS-S) 제품이 11월 1일 건강보험 급여에 신규 등재되면서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셀트리온제약은 기존 펜 타입 중심의 유플라이마 제품군에 안전장치를 갖춘 PFS-S를 추가하게 됐다. PFS는 약물이 미리 충전된 주사기이며, PFS-S는 PFS에 주사 후 바늘을 감싸는 안전장치를 적용한 제품이다. 사용 후 주사침 노출을 줄이도록 설계돼 있어 의료진의 안전한 취급을 돕는다.

유플라이마 40mg PFS-S의 약가는 1회 투여분 기준 22만390원으로,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동일 성분 40mg 제품 중 최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경제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펜 타입과 함께 환자의 상태와 투여 환경, 선호도 등을 고려한 제품 선택을 지원할 수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40mg PFS-S 출시에 이어 2027년 유플라이마 20mg PFS도 국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저용량 제품까지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함량과 제형을 모두 갖춘 국내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나 필요한 투여 용량에 따라 의료진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방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환자에게 있어 약제의 경제성과 함께 투여 방식, 사용 후 취급까지 고려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며 "유플라이마의 약가 경쟁력과 다양한 제품 구성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치료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차세대 약물전달 기술 공개

美 'PODD 2026'서 연구성과 발표

대웅제약이 약물 투여 간격과 방식, 부피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약물전달시스템(DDS)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했다. 신약 공동개발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 실적인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29~30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 약물전달 기술 콘퍼런스 'PODD 2026'에 참가해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 연구성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신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지속형 주사제 '큐어' ▲마이크로니들 패치 '클로팜' ▲바이오의약품 고농축 제형 '써미크라' 등을 선보였다.

행사 첫날 대웅제약 김관영 제제기술센터장은 '펩타이드·바이오의약품을 위한 차세대 약물전달 플랫폼 솔루션'을 주제로 구두 발표도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각 약동학 연구 성과와 함께 약물 특성에 맞춘 플랫폼 적용 전략을 제시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장기지속형 주사제 '큐어'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활용한다. 약물을 일정 기간 지속 방출해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펩타이드 약물 대상 연구 결과와 대량생산 공정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술인 '클로팜'은 미세한 바늘을 이용한다. 특히 비만·당뇨병 치료제 관련 GLP-1 계열 약물의 패치 투여에 따른 체내 흡수율, 혈중 농도 변화 등을 연구했다. 바이오의약품 고농축 기술인 '써미크라'는 항체 및 항체·약물 접합체(ADC) 치료제 개발에 쓰인다.

대웅제약은 행사 기간 독자 부스를 운영하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후속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자사 플랫폼 기술을 외부 후보물질에 접목하는 방식의 파트너십을 다각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대체불가 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2026년 11월 10일(화) 14:00~16:3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메트로경제)
후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록 참가비 무료
문　　의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연사 소개



이종민
- 한전기술지주 대표
- 전 SK텔레콤 부사장



이태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곽은섭
-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이상준
-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제훈
-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40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
강연	14:40~15:00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15:00~15:20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15:20~15:40	**이상준**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15:40~16:00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질의응답	16:00~16:30	언론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창진원, 싱가포르에 스타트업 26곳 진출 지원

창업진흥원이 싱가포르 기술·혁신 주간(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스위치)에 'K-혁신기업 통합관'을 조성, 스타트업 26개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2일 창진원에 따르면 '스위치'는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약 100개국에서 2만 5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30개 이상의 국가관(글로벌 파빌리온)이 선보였다. /창진원



한국앤컴퍼니그룹, 시민에 판교 본사 공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 시민 25명을 대상으로 건축 투어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완공된 테크노플렉스는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립한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협업해 조성했다. 지하 6층~지상 10층, 연면적 4만7919㎡ 규모로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본사 역할을 한다. /한국앤컴퍼니그룹



매일유업, '韓시니어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열어

매일홀딩스와 매일유업, 대한골프협회가 3일부터 6일까지 전북 고창군 고창컨트리클럽에서 '매일 셀렉스배 제31회 한국시니어오픈 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만 50세 이상 국내외 프로·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하는 시니어 골프대회다. 총상금은 국내 시니어 대회 최대 규모인 3억원으로 책정됐다. /매일유업



이화의료원, '보구녀관 139주년 기념식' 열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10월 30일 이대서울병원 이영주홀에서 '보구녀관 13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구녀관은 고종 황제가 '여성을 널리 구하는 곳'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과 이화의료원의 전신이다. 특히 당대 척박했던 환경 속에서 여성 의학 교육의 첫 싹을 틔운 이곳은 병원이자 평등과 자활의 거점이었다. /이화의료원

이노비즈협회
글로벌 강소기업 키운다

이노비즈협회가 우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돕는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참여사를 모집한다.

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기술 분야인 '3대 메가(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및 '7대 시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산업군을 영위하는 이노비즈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발 규모는 총 50개사 안팎이다. /김승호 기자

김동선, 프레데릭 아르노와 갤러리아 아이스크림 회동

〈한화M&S 사장〉 〈로로피아나 CEO〉

강남구 갤러리아百 명품관서
새 단장한 로로피아나 매장과
협업한 크리스마스 트리 찾아
한화 계열 분리 중 만남 '주목'



김동선 한화M&S 사장과 프레데릭 아르노 로로피아나 CEO. /독자제공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M&S) 미래전략총괄 사장과 프레데릭 아르노 로로피아나 최고경영자(CEO)가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만나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며 유통 현안을 논의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과 아르노 CEO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을 방문해 최근 새 단장한 로로피아나 매장과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둘러봤다.

이후 두 사람은 갤러리아 명품관 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 매장을 찾아 아이스크림을 시식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들의 모습이 방문객들에게 포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기도 했다.

벤슨은 김 사장이 주도해 론칭한 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다. 이번 만남은 한화그룹의 지주사 설립과 인적분할을 통한 계열 분리 추진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아르노 CEO는 세계 최대 명품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태그호이어 대표와 LVMH 시계 부문 총괄 CEO를 거쳐 지난 3월부터 로로피아나를 이끌고 있다. 로로피아나는 이탈리아의 캐시미어 기반 럭셔리 브랜드로 2013년 LVMH그룹에 편입됐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올해 로로피아나와 협업해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명품관 이스트 광장에 잎을 엮어 제작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금빛 조명을 설치했으며, 건물 외벽에는 로로피아나 로고와 별 장식을 적용했다. 해당 장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갤러리아는 2016년 불가리를 시작으로 까르띠에, 샤넬, 루이비통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크리스마스 협업을 이어왔다. 올해로 11년째 명품 브랜드와 연말 장식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아르노 CEO는 지난해에도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백화점 4사 대표들과 만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도 방한해 주요 매장을 점검했다. 아르노 CEO는 이번 방한 기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본점의 LVMH 주요 브랜드 매장도 둘러봤으나 신세계백화점 경영진과 별도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전자, 아프리카 첫 올림픽 후원

'다카르 청소년올림픽' IOC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 참여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올림픽에서 청소년 선수들의 메달 획득 순간을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기록한다.

삼성전자는 세네갈에서 열리는 '2026 다카르 청소년올림픽'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빅토리 셀피(Victory Selfie)'가 청소년올림픽 최초로 도입된다. 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직접 셀카를 찍으며 동료 선수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경기 중계에도 활용된다. 스케이트보딩과 태권도 경기에서는 갤럭시 S26 울트라가 방송 카메라와 함께 촬영에 투입돼 경기 현장을 전 세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수촌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교류하고 갤럭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삼성 오픈 스테이션(Samsung Open Station)'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갤럭시 인공지능(AI)으로 올림픽 테마 사진을 제작하는 '빅토리 월'과 대회 경험과 포부를 짧은 영상으로 남기는 '빅토리 토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10월 31일(현지시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2026 다카르 청소년올림픽 개막식에서 그리스 선수단이 국가명이 표시된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와 함께 메달 시상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빅토리 포토 존'을 마련하고 갤럭시 기능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또 멘토링 프로그램 '메달을 넘어(BEYOND THE MEDAL)'를 통해 IOC가 선정한 롤모델 선수들이 청소년 선수들에게 성장과 진로에 관한 조언을 전한다.

삼성전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 후원을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개막한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은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첫 올림픽으로, 25개 종목에 청소년 선수 약 2700명이 참가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 N 페스티벌' 성료… 7만명 방문

현대차, 2026 시즌 마무리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싱 대회인 '현대 N 페스티벌' 2026 시즌을 마무리하며 고성능 브랜드 N의 고객 접점 확대와 모터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최종 6라운드를 끝으로 현대 N 페스티벌 2026 시즌을 종료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누적 7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 다양한 레이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현대 N 페스티벌은 동일 차종으로 경주해 드라이버의 실력을 겨루는 원메이크 레이스다. 올해는 아이오닉 5N eN1 컵 카가 참가하는 최상위 '그란 투리스모 eN1'을 비롯해 아반떼 N1·N2 컵 카 기반의 금호 N1, 넥센 N2, 넥센 N3 등 4개 클래스로 운영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N3 클래스는 레이싱 입문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저변 확대를 도모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 N 페스티벌 2026 시즌 최종전에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들이 경주하는 모습. /현대차

서울 수능 응시생 11만3454명… 0.6%↓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 요원 배치

올해 서울 지역 수능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운데, 재학생은 줄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9일 관내 시험장 228곳에서 수능을 치르며,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담 요원을 배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현황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 수능 지원자는 11만3454명으로 지난해(11만4158명)보다 0.6% 감소했다. 재학생은 5만9625명으로 3658명 줄었지만, 졸업생은 4만9438명으로 2759명 늘었다. 검정고시 등 출신 지원자도 4391명으로 전년보다 195명 증가했다. 전체 지원자 중 재학생 비중은 52.5%, 졸업생 비중은 43.5%다.

올해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장 학교에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 요원을 배치하고, 사전 연수를 통해 기기의 특징과 적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기보, 비대면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기술보증기금이 고객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보증신청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선다.

기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 또는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보는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 기관으로,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기업 대표자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실적은 개선 전 월 3000건 수준에서 개선 후 월 3만여 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도 활성화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 사 ◆HD현대 ◇부사장 승진 △HD한국조선해양 이상혁 △HD한국조선해양 임대준 △HD현대중공업 설귀훈 △HD현대중공업 이철헌 △HD건설기계 임형택 △HD현대오일뱅크 조진현 △HD현대일렉트릭 양재철

부 음 ▲김제태씨(13대 국회의원〈논산, 신민주공화당·민주자유당〉) 별세, 손중구씨 남편상, 김은정·김계정·김선경·김미수·김영수씨 부친상, 이종태·박정호씨 장인상 = 1일 오전 4시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20분, 장지 논산 선영. 02-2258-5969

▲강문자씨 별세, 이란혜(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씨 시모상=1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VIP1호, 발인 3일 오전 8시30분. 055-233-5131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곳이 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의 편의점
뮤 직 드 라 마
불편한 편의점2
Always
예매하기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종이와 국감, 그리고 약속에 대하여



서 선 미 의
기후에세이

까치발을 든다. 담 너머 국회 안을 바라본다.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국회 안을 서성인다. 국정감사가 그렇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시간이 가장 환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다. 막은 내리고 불은 꺼졌다.

국정감사를 복기하다 문득 종이를 떠올렸다. 감사 대상인 정부는 두꺼운 업무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실마다 여러 권씩 제출한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회의 때마다 질의서를 출력해 검토하고, 행정실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운영자료를 인쇄한다. 국회의원 명패가 세워진 책상 위에는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정감사장에는 종이가 산적해 있다.

국회가 종이 없는 국감을 본격적으로 말한 때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원욱 의원은 ICT 발전을 이끌어야 할 위원회의 특성을 강조하며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서 등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의원들은 개인 좌석의 PC로 문서 열람이 가능했다. 당시 과방위는 A4용지 기준 최소 200㎏ 이상의 종이 인쇄물을 줄였다. 같은 해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초선의원 50명도 종이 없는 국감을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자원 낭비 개선을 촉구했다.

2020년의 제안은 2024년 다시 실천으로 이어졌다. 22대 국회는 호기롭게 종이 없는 국감을 천명했다. 2024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며 '종이 없는 국감'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자료 배부 방식을 전자화하는 방향이었다. 국감을 마친 뒤 국회는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170만5611쪽의 자료를 전자 형태로만 배부했고, 이를 통해 A4 복사용지 구매예산 1억 2000여만 원을 아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여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도 있었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회의와 보고에 필요한 자료에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종이 없는 국감에서 종이 없는 국회로의 확장이다.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에 쓰였던 종이 인쇄물들은 국감이 끝나면 파쇄실로 가거나 쓰레기장으로 향한다.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국감 기간에만 쓰이는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이 매년 약 4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2024년 8월 9일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 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2년여가 지난 지금도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스스로의 살림을 다루는 곳이다. 자기 집 종이를 줄이는 일조차 2년째 멈춰 서 있는 셈이다.

다시 올해로 돌아온다. 국감을 앞둔 시기에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종이 없는 국감에 대한 그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새벽 어스름을 지나 저녁노을에 이른 지구를 우려한다. 지구 정주자라면 누구나 그러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를 바라보고 국회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이유다. '기후위기'를 앵무새처럼 말하면서도 좀처럼 그 진의를 알 수 없는 정치인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종이 없는 국감을 자랑스럽게 국민에게 알렸던 국감의 원칙조차 쉽게 잊은 그들이다.

국회의 지금 마음은 첫 마음과 같을까? 자신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종이를 그들 손에 쥐어준 이들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종이를 얻기 위해 베어낸 숲의 대가를 치르는 이도 역시 국민이다. 국회의원들은 그 고통에 잠시나마 곁을 내어주겠다고 국민에게 달디단 소리를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종이'를 응시하고, 두 해 전의 약속도, 그 약속을 지켜 얻어낸 칭찬도 다시 불러 세워 주길 원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나를 아는 AI, 서로를 모르는 사회



기자 수첩
김 보 민
〈IT부〉

인공지능(AI)에 대한 소식은 하루가 다르게 넘쳐난다. AI는 사람과 사람을 잇기보다 개인에게 맞춰주는 기술이다. 서울AI재단이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에서 생성형 AI 활용 목적은 '정보검색'(92.2%)이 가장 많았고, '일상대화'를 꼽은 비율도 65.2%로 2023년보다 42.9%포인트 늘었다.

AI 이용 격차는 사용 여부를 넘어 활용량에서도 나타난다. 오픈AI의 기업 고객 분석에서도 올해 6월 활용량 상위 10% 기업과 중간 수준 기업의 이용자당 AI 출력량은 8.3배 차이가 났다.

AI 이전의 삶을 오래 살아온 개인에게는 이미 일상이 있다. 사람이 살아오던 관성과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어렵다. 연령대에 따라 AI를 써본 경험부터 차이가 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고령층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30.2%로 일반 국민(59.4%)의 절반 수준이었다. 앞의 서울시민 조사에서 'AI 시대에 준비돼 있다'고 답한 비율은 55세 미만이 65.0%, 55세 이상은 19.6%였다. AI 확산에 '우려가 크다'는 응답도 55세 이상(30.1%)이 55세 미만(9.3%)의 3배를 넘었다. AI는 정보 격차를 줄일 수도 있지만 더 벌릴 수도 있다.

AI는 정보를 접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6'에 따르면 AI 챗봇으로 매주 뉴스를 본다는 한국 응답자는 14%로 1년 새 두 배가 됐다. 세계 평균(10%)보다 4%포인트 높다. 범용 AI와 포털 AI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정보가 도는 알고리즘의 순환 속으로 들어왔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식은 더욱 알아가기 어려워졌다.

연결의 시대라고 하지만, 개인화된 정보는 개인과 개인 간의 분리를 키울 수 있다. 플랫폼에서 같은 콘텐츠를 함께 소비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생각이 일률화되기도, 고립되기도 쉬워진다. AI가 정보를 골라 보여주는 구조에서는 정보 통제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담론의 지배와 정보 유출도 마찬가지다.

AI가 이끄는 사회 변화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그럴수록 연대의 필요성을 묻게 된다. 그 답은 AI가 줄 수 없다.

/kbm@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3일 (음 9월 2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마음에 중심이 없고 흔들림이 많은 날입니다. **60년생** 안정을 취하세요. **72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84년생** 일을 추진하기 앞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소 **49년생** 매매는 이루어지나 생각만큼 큰 이익은 없겠습니다. **61년생** 타인의 재물에 욕심부리지 마세요. **73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85년생** 흐름에 맞춰 순리대로 진행하세요.

호랑이 **50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62년생**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86년생** 미래를 미리 대비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토끼 **51년생** 서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63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5년생** 사업의 확장이나 투자는 금물입니다. **87년생** 상대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용 **52년생** 중요한 협상은 내일로 미루세요. **64년생** 예상하지 못한 자녀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76년생** 자기 발전을 위해 매진하세요. **88년생** 보기 좋은 감이 맛도 좋다고 했습니다.

뱀 **53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딪혀 보세요. **65년생** 강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77년생** 주머니가 배로 늘어납니다. **89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소속된 집단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말 **54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일이 마무리됩니다. **66년생** 노력을 닦은 결실이 맺어집니다. **78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90년생** 고난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으니 인내하세요.

양 **55년생**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67년생** 육신이 고달프니 이 내 몸이 외롭습니다. **79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기세요. **91년생**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마세요.

원숭이 **56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68년생** 인간사 매사 튼튼히 노력하며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80년생** 분주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92년생** 금전운이 열립니다.

닭 **57년생** 결과에 연연하니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69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81년생**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93년생**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스스로를 혁신하세요.

개 **58년생** 귀인이 도와 해결됩니다. **70년생**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82년생**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94년생** 뛰어난 재능이 있으니 늦게라도 원하는 바는 이루어집니다.

돼지 **59년생** 귀하를 돕는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71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83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은 이루어집니다. **95년생**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10월의 기도

해와 달과 별로 대변되던 천지자연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협소한 곳이다. 요즘 유튜브에 소개되는 우주의 광활함을 보여주는 쇼츠를 보자면 우리 인간들은 아주 미소한 먼지에 끼지도 못한다. 생물의 존재를 미시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득시글하며 거시적으로 보자면 저 하늘 너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선조들 처지에서는 북극성이 최대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허블망원경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발전된 성능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까지 탄생하여 우주의 끝은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세계인 것이다. 우리 태양계를 품고 있는 우주 외에도 그 끝과 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우주는 인간의 상상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다.

우리 인류는 특히 우리 선조들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우주의 기운을 통찰해 내었다. 아주 오랜 옛적부터 쌓여온 경험과 직관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것이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미신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지만 해와 달의 위치와 별자리의 움직임이 인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나 태어나서 평균 100세의 수명을 가진 인간들이 해와 달과 별자리의 운행 안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송나라 때 소강절은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내었다. 물론 현대 천문학에서 가늠하고 있는 우주의 범위와 연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육안으로 관찰한 것을 생각한다면 대단한 일이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우주 자기장의 범위를 염두에 둔다면 선생의 우주 나이 계산은 실질적 의미가 깊다. 서두가 길었다. 누가 뭐래도 10월은 상달이다. 선조들은 이때에는 하늘 문이 열린다고 했다. 기복이 되었더라도 피흉취길을 바라며 기도를 해야 하는 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힘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2	6					8
			7		8		3	
		6		9		4		
2		8	4			9		
		3			6	5		4
		5		6		1		
	2		8		7			
8					9	6	4	

		8			2	6		
		5	9	4				
3					8		2	4
4		1					5	
	8						7	
	6					1		2
6	2		3					7
				9	7	2		
		7	2			8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장기전세 줄이려 조례 개정 추진… 54억 성공보수 계약 무효

재개발조합, 민간업체 등 용역 맡겨
서울 조례 개정에 장기전세 반토막
중화1구역 60가구서 30가구로 축소
수익 증가분 25% 성공보수 약정
법원 "변호사법 위반" 청구 기각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투시도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업무를 외부 민간 업체 등에 맡기고, 수익 증가분의 25%를 성공보수로 약정한 계약이 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실제 조례 개정으로 장기전세주택은 60가구에서 30가구로 줄었지만, 법원은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2일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용역비 청구 소송' 판결문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월 16일 법무법인이 서울 중랑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은 2017년 11월 1일 법무법인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와 '분양주택 세대수 증가를 위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장기전세주택을 줄여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이에 따른 조합 순수입 증가분의 2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용역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별도 협약을 통해 법률사무와 그 밖의 업무를 나눠 맡고, 성공보수를 각각 60%와 40%로 배분하기로 했다.

당시 중화1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보다 높아진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했다. 2011년 상위법령에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근거가 마련됐고 경기·인천·대구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도입했지만,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의회도 상위법령의 취지가 장기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록을 조사하고 서울시 조례 개정안 문구를 작성했다. 시의원과 의회 관계자들을 접촉해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서울시의회의 2018년 12월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화1구역 조합장의 조례 개정 청원은 2017년 12월 7일 접수됐다. 성중기 시의원이 청원을 소개했으며, 이를 계기로 2018년 2월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제9대 시의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성 의원은 같은 해 10월 15일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자치구 내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3000가구 이상인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증가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사실상 중화1구역뿐이었다. 임대주택 3000가구 이상 공급이 계획된 자치구는 5곳이었지만,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중랑구뿐이었다. 중랑구 내 공공주택지구에는 임대주택 3581가구가 계획돼 있었다.

검토보고서는 조례 개정으로 중화1구역의 장기전세주택이 60가구에서 30가구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사업에도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관련 내용이 심사 과정에 반영됐으며 개정 조례는 2019년 1월 3일 공포됐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4년 1월 11일 중화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장기전세주택을 60가구에서 30가구로 줄였다. 일반 임대주택 160가구는 유지돼 전체 임대주택은 220가구에서 190가구로 감소했다. 해당 사업은 총 1055가구 규모의 '리버센 SK뷰 롯데캐슬'로 조성됐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측은 일반분양 전환으로 조합 순수입이 217억6110만원 증가했고, 이에 따라 성공보수 54억4027만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몫 60%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약 35억905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례 개정을 위한 현황 조사와 청원서 제출, 관계자 면담 등도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비변호사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법무법인과 보수를 나누기로 한 계약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협약서에 법무법인이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기재된 데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전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조례 개정이나 장기전세주택 축소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조례 개정 관련 용역계약과 성공보수 청구권의 효력이 쟁점이었다.

중화1구역 조합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소송의 당사자이며, 1심에서 패소한 법무법인 측이 항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조합장과 현재 조합장이 다르고 관계자들도 교체돼 구체적인 계약 경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건설사들, AI·반도체 인프라로 사업영토 확장

주택사업 불확실성에 신사업 확대
GS건설·DL이앤씨, 대형 수주 공략
대우건설, 데이터센터 조직 강화



SK에코플랜트가 시공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예상 조감도. /SK에코플랜트

건설사들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대형 사업의 수주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전력 공급과 냉각 설비를 포함한 설계·시공 역량 확보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주택사업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신사업이 주택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지가 관심이다.

2일 건설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GS건설은 동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인입을 위한 약 2500억원 규모 송변전 인프라 공사를 수주해 진행 중이다. iM증권은 초기 100㎿ 부지의 기초·토공사 발주가 임박했으며 본공사 착공은 내년 초로 예상했다. 향후 사업이 확대되면 중장기 수주와 매출 기반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DL이앤씨는 하남과 부천 내동, 당진 등에서 약 2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에서 신규 사업 후보군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1.0% 감소한 만큼, 데이터센터 사업의 계약과 착공 시점이 향후 매출 회복의 지표가 될 전망이다.

전담 조직과 AI 에이전트를 통한 체질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8일 조직개편에서 데이터센터사업팀을 신설했다. 지난 4월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한 데 이어 사업 조직을 갖춘 것이다. /성채리 기자 cr56@

GS건설, 모듈러 건축 표준화 속도

용도별 스틸 모듈러 평면 20종 개발
설계부터 공사비까지 신속 검토

GS건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호텔, 기숙사 등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스틸 모듈러 표준평면 20종을 개발하고, 이를 BIM(건설정보모델링) 기반 공사비 산정과 연계해 고객의 신속한 사업성 검토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발은 고객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용도와 규모에 맞는 설계안을 선택하고 예상 공사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프로젝트별로 진행하던 설계·견적 검토 과정을 효율화해 모듈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스틸 모듈러는 주요 구조체와 마감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이다. 공사 기간 단축과 품질 관리 등에 강점이 있지만, 사업 초기에는 모듈러 특성을 반영한 설계와 공사비 검토가 필요해 고객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GS건설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적된 주거 설계 경험과 모듈러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용도의 표준평면을 개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이달 분양시장 활기… 지방 공급 확대

일반분양 3만4909가구 대기
전년比 95%↑… 지방 비중 55%

이달 전국에서 일반분양 아파트 3만4909가구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제 일반분양 물량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전체 분양예정 물량의 절반 이상은 지방에 예정돼 있다.

2일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60개 단지, 총 4만435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실제 분양된 2만8064가구보다 58% 많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3만4909가구로, 전년 동월 실적 1만7894가구보다 95% 많다. 다만 예정 물량인 만큼 실제 공급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달 지역별 분양예정 물량은 지방이 2만4507가구로 전국 물량의 약 55%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1만9851가구다.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됐던 10월 계획과 달리 이달에는 경북·부산·세종 등 지방 주요 지역에서도 공급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만1275가구로 가장 많다. 평택 고덕의 '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 A31·A34·A35블록과 '엘리프고덕센트럴하이'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의정부 '의정부역펠리스타워양우내안애', 안산 '아르뮤제자이', 남양주 '왕숙한신더휴센팀', 부천 '부천대장하우스토리디센트' 등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은 총 660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457가구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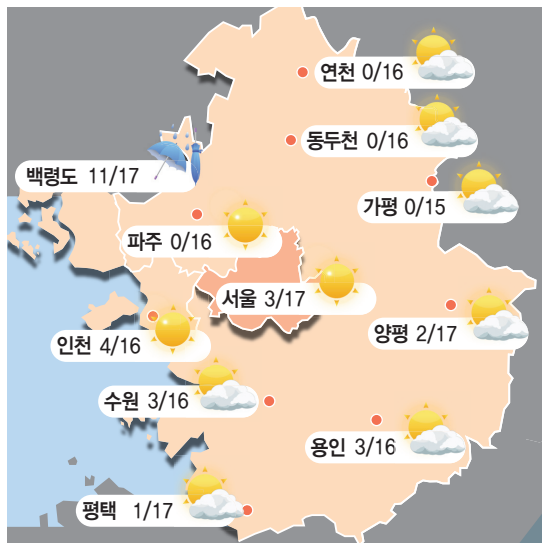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59 | 해짐 / 17:32

11월 3일 (火) 음력 : 9월 24일

수도권 날씨 3~17℃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독일·스위스서도 '폭력 시위'… 화염병·최루탄 오가는 유럽
▲트럼프, 알래스카 LNG 띄우며 한국 거론… 대미 투자 압박 /사진 뉴시스
▲佛검찰 "화염병 던진 시위대, 살인미수 혐의 적용할 것"
▲美, '우크라 경유' 러시아산 가스 유럽 재공급 추진
▲日 자위대, 오키나와에 기동전투차 첫 배치… 대만유사시 대비
▲삼성·테슬라, 美의 베트남산 제품 추가관세 반대… 업계별 온도차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6호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백화점
크리스마스 새단장
연말 경쟁 돌입
L1

HK이노엔
의료기기 시장
첫 진출
L2



희망의 빵 나누고, 안부 살피고… 이웃 향한 '따뜻한 항해'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Sh수협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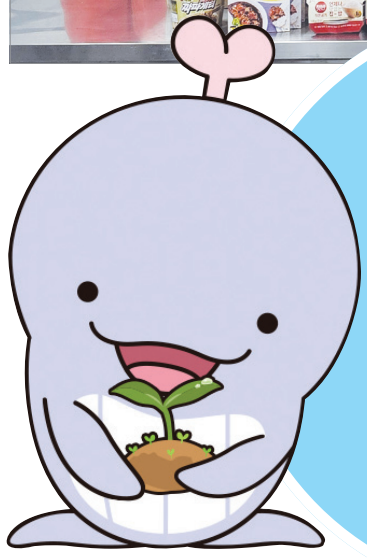
임직원 빵 직접 구워 소외이웃에 전달
아동복지시설·무료급식소 등에 온기를

8년째 이웃에 쌀·라면 등 생필품 지원
지역사회 살피고, 이웃과 온정 나눠

돌봄 어르신과 1:1 결연 맺고 안부 확인
노년층 '숨은 자산 찾기' 금융지원도

임직원 헌혈 '생명나눔 캠페인' 이어가
혈액암 환우·가족에 따뜻한 위로 전달









1 서울공덕금융본부 임직원들이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용산봉사나눔터에서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김수경 Sh수협은행 DT본부장(왼쪽)과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이 지난 4월 '사랑잇는전화' 사업 업무 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3 Sh수협은행 임직원이 지난 4월 열린 '봄날의 따뜻한 나눔 사랑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더 나은 미래로 항해하는 지속가능은행'이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비전 아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항해에는 청소년부터 어르신,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까지 다양한 이웃이 함께한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부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생필품 나눔, 환경을 지키는 플로깅과 미래세대를 위한 ESG 교육까지 활동의 범위도 폭넓다. 수협은행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온기를 전하고, 미래세대에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가치를 공유하며 상생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 구운 빵으로 따뜻한 마음을

수협은행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희망나눔 베이커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희망나눔 베이커리 사업은 임직원이 빵을 직접 구워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기존 개인 단위 참여 방식에서 올해 전국 19개 금융본부 단위로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수협은행은 올해 총 15차례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이 올 한 해 직접 구워 이웃에게 전달한 빵만 1000개가 넘는다.

가장 최근 소외계층을 위해 빵을 구운 곳은 Sh수협은행 서울공덕금융본부다. 서울공덕금융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14명은 지난달 약 4시간에 걸쳐 빵 250개를 만들어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서울마포금융본부 임직원 11명이 14번째 희망나눔 베이커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약 4시간 동안 정성껏 구운 빵 430개를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3월 초에는 압구정금융본부 임직원들이 빵 400개를 만들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까리따스 수녀회'에 전달했다.

◆ 생필품에 담은 이웃사랑

수협은행의 이웃사랑은 빵 나눔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이웃사랑 생필품 나눔'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밀착형 상생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지역사회 이웃사랑 생필품 나눔 활동은 지난 2019년부터 8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영업점이 주민센터 혹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쌀,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지원한다.

올해는 광교금융센터, 여의도종합금융본부 등 104개 영업점이 자발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연말까지 더 많은 영업점이 나눔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수협은행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금융기관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책무로 삼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지역사회와 고객에 있다"며 "전국의 영업점 임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 동네 이웃들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것은 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 돌봄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나눔

수협은행은 지난 4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사랑잇는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잇는전화는 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원과 돌봄 어르신이 1:1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민관 협력 프로그램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안부 전화뿐 아니라 은행의 전문성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숨은 자산 찾기' 등의 금융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법과 대응 방법 등 금융 정보를 제공해 노년층의 경제 권익 보호에 나선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사회망 구축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생명나눔 실천도

수협은행은 24년째 '봄날의 따뜻한 나눔 사랑해 헌혈' 행사도 이어오고 있다. 봄날의 따뜻한 나눔 사랑해 헌혈 행사는 Sh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생명나눔 캠페인이다.

올해 초 열린 생명나눔 캠페인에는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헌혈을 진행했다. 누적된 헌혈 참여 인원은 2268명이다. 모인 혈액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생명에게 기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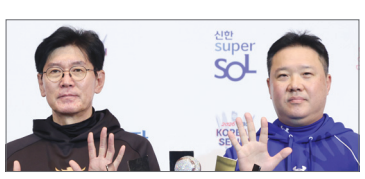
Sh수협은행 신학기 은행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추석 명절에는 한국혈액암협회를 찾아 10kg 쌀 250포도 기부했다. 이번 후원은 장기간의 치료와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혈액암 환우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정서적 위로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문옥 Sh수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앞으로도 수협은행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장우진, 한국 선수 첫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챔피언스 탁구 우승
▲KT 대니엘 vs 삼성 최원태, KS 1차전 선발 맞대결
/사진 뉴시스

▲박항서 감독에 "김치맨"…태국 프로축구서 인종차별 논란
▲국내 골프 인구 581만 명…2년 동안 43만 명 줄었다

▲K리그1 FC안양 조직 개편…이우형 안양 단장, 테크니컬 디렉터로
▲28억 김환기부터 포켓몬 카드까지…서울옥션, 2주간 '옥션쇼'